



2018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



# 한 옥

우리가  
몰랐던  
북한의

2018. 10. 19 (금) 14:00~18:00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주제발표1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국가한옥센터의 역할  
신치후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센터장

주제발표3 남과 북, 콘크리트 전통건축의 형성과 특징  
안창모 |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주제발표2 북한 한옥의 재조망-실향민들의 기억과 재생  
강영환 |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주제발표4 북한 건축계의 전통 인식 : 담론과 실험  
박동민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강사

좌 장 김성우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토 론 자 이왕기 |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황두진 | 황두진 건축사사무소 대표 / 이형재 | 가톨릭관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주최·주관 |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후원 |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

## 모시는 글

2018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는 한옥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옥 정책과 한옥 문화 진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한옥포럼’을 개최해 왔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남과 북의 상생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건축 도시 분야에서는 기술 혁신, 경제 성장, 기후 변화,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 포용적 건축도시문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의 시도로써 “우리가 몰랐던 북한의 한옥”이라는 주제로 2018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을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그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북한의 건축·도시·전통주거 현황과 담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온 전문가들의 성과를 대중들과 공유하고, 향후 한옥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및 정책 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10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박 소 현







## 일정표

○ 주 제 우리가 몰랐던 북한의 한옥

○ 일 시 2018년 10월 19일 (금) 14:00 ~ 18:00

○ 장 소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 진행순서

13:30~14:00	등 록	사 회 이규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14:00~14:10	개회사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14:10~14:25	주제발표1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국가한옥센터의 역할 신치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센터장
14:25~14:50	주제발표2	북한 한옥의 재조망 - 실향민들의 기억과 재생 강영환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14:50~15:15	주제발표3	남과 북, 콘크리트 전통건축의 형성과 특징 안창모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15:15~15:40	주제발표4	북한 건축계의 전통 인식: 담론과 실험 박동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강사
15:40~16:00	휴식 및 정리	
16:00~18:00	패널 및 전체토론	좌 장 김성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토론자 이왕기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황두진 황두진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형재 가톨릭관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18:00	폐 회	

주 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후 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주 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문 의 국가한옥센터 T.044-417-9828

2018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

# 한옥

우리가  
몰랐던  
북한의

## CONTENTS

- 05 | 주제발표1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국가한옥센터의 역할**  
신치후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센터장
- 16 | 주제발표2  
**북한 한옥의 재조망-실향민들의 기억과 재생**  
강영환 |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37 | 주제발표3  
**남과 북, 콘크리트 전통건축의 형성과 특징**  
안창모 |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 58 | 주제발표4  
**북한 건축계의 전통 인식 : 담론과 실험**  
박동민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강사



주제발표

# 1

##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국가한옥센터의 역할

신치후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센터장



##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국가한옥센터의 역할

신치후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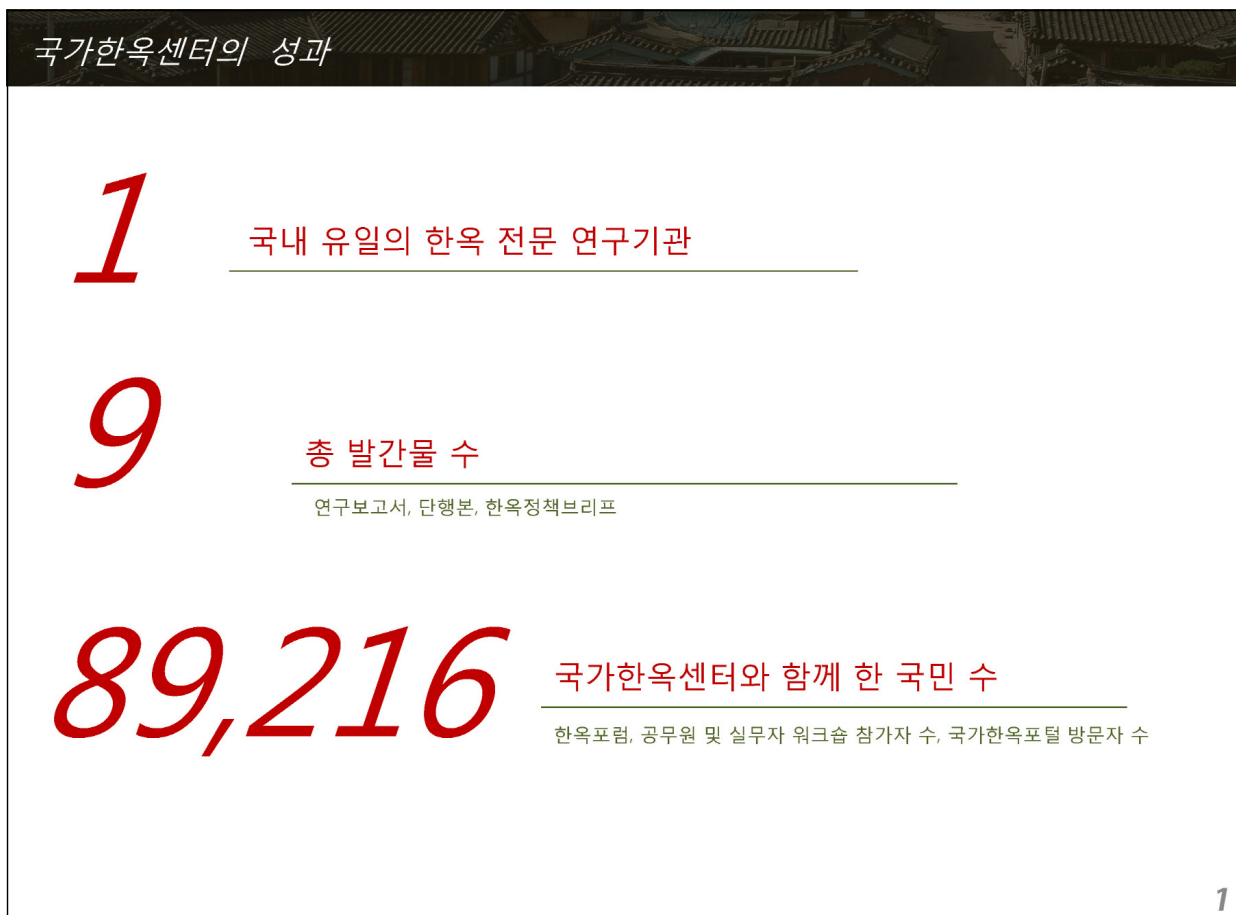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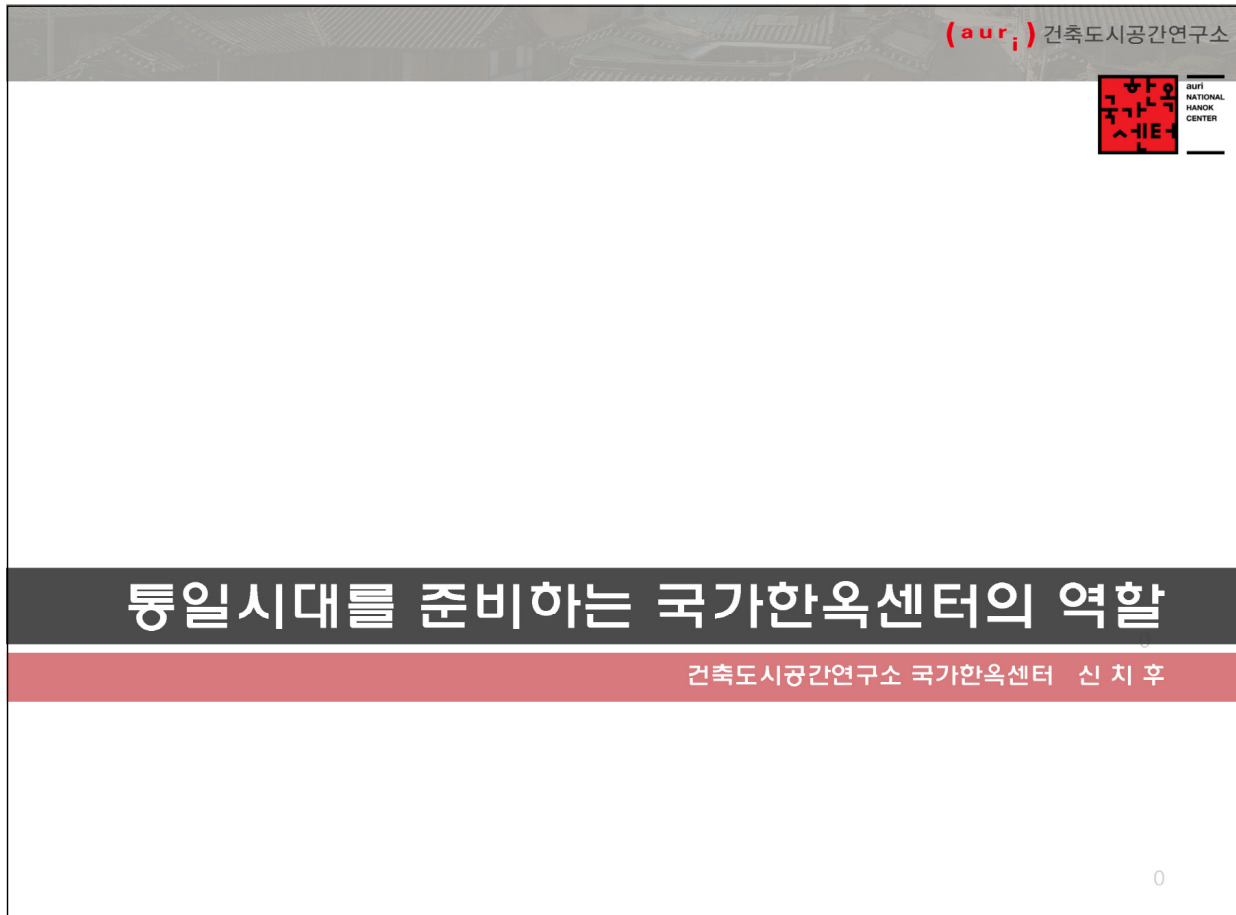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는 건축도시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하여 대통령 지시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건축도시공간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국가한옥센터가 설치된 지 올해로 8년째를 맞이했다. 국가한옥센터는 ‘한옥정책 지원’, ‘한옥문화 보전’, ‘한옥산업 진흥’, ‘한옥조사 및 정보 홍보’ 등, 한옥을 둘러싼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국가한옥센터는 한옥에 담긴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 110,671건의 한국건축아카이브를 구축해 왔으며, 한옥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한옥건축과정과 그 기법에 관한 간행물을 발간하였다. 한옥 진흥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한옥 전수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65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약 90,000건 구축), 전국 한옥 수 추정(약 209,880채) 등 한옥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또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하위규정 마련을 지원하였으며, 한옥건축 확산을 위해 ‘한옥건축기준’ 마련과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이들 성과를 정리하여 시의성 있는 한옥 정책을 제안하고 홍보하기 위해 ‘한옥정책브리프’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오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국가한옥센터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에 대해 구상해 보고자 한다. 특히,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남북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현 시점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향후 한옥 관련 국가 정책의 구상과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한옥센터에서는 한옥이 분단 이전 남과 북이 본래 지니고 있던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한 열쇠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오늘 발표에서는 그간 국가한옥센터의 성과를 돌아보고, 우리 민족의 건축문화의 뿌리이자 주거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한옥 분야에서 남과 북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이질성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 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려고 한다.





## 국가한옥센터의 성과

### 주요 추진경과

2010	국격향상을 위한 新한옥플랜 대통령 보고	국건위, 국토부 등 6개 부처
합동		
2011	국가한옥센터 개소/ 한옥정책 추진방향 설정	
2012	한옥 기초통계 기반 구축	한옥 전수조사 및 산업조사를 통한 기초통계 구축
2013	한옥 및 전문가 인증 기반	한옥 건축물, 교육, 자격 인증제도 기반연구
2014	한옥 新기술 확산	한옥 기술 예측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新기술 확산
2015	진흥법 시행 및 '국가한옥센터' 지정	한옥건축기준 등 정책수단 강화
2016	지역 맞춤형 한옥정책 확대	
2017	보편적 건축유형으로서의 한옥 보급 확대	

2

## 국가한옥센터의 성과

한옥 정책 지원		한옥 문화 보전		한옥 산업 진흥		한옥 조사 정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법제도 개선 및 정책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옥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li> <li>한옥마을 지원정책을 통한 역사 문화가르침 조성방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내 한옥 보급방안 연구</li> <li>기존 한옥의 보전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방안 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옥의 특성을 고려한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옥주택 유지관리 점검기준 및 실행방안 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옥건축기준 안내서</li> <li>한옥 등 조례 제정 안내서</li> <li>한옥 부분수선에 관한 거주자 면담 및 점검 사례 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옥 등 건축자산법 개정안 마련</li> <li>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의 변화 진단을 통한 농촌지역 한옥마을 보전방안 연구</li> </ul>	
인문학 및 디자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옥의 인문학적 가치발굴 연구(1)</li> <li>신한옥 모델개발 연구(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옥의 인문학적 가치발굴 연구(2)</li> <li>신한옥 모델개발 연구(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옥의 인문학적 가치발굴 연구(3)</li> <li>신한옥 모델개발 연구(3)</li> <li>한옥마을 우수경관 사례 연구(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옥문화: 대표용어 발굴해제 연구(1)</li> </ul>	
산업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옥 정책 산업 동향 보고서</li> <li>한스타일 공공건축물 공급방안 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2 한옥산업 현황조사</li> <li>수요창출에 기반한 한옥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3 한옥건축산업 동향 (대국민 수요조사)</li> <li>한옥의 규모와 형태에 따른 목재 비용 산출조사 연구</li> <li>한옥적 실내공간 확산사업 (주택, 공진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대 한옥기술의 현황과 전망</li> <li>한옥 통계 백서(한옥산업 실태조사)</li> <li>한옥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옥 공공건축물 발주절차 개선 방안</li> <li>한옥 건축공사 전과정 기록사업(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옥 공공건축물 발주절차 개선 방안</li> <li>한옥 건축공사 전과정 기록사업(2)</li> </ul>	
교육 및 전문가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옥 시공실습 매뉴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옥학교의 운영실태 및 교육현황 조사 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옥 전문인력 교육 및 자격 인증방안 연구</li> <li>한옥학교 및 한옥 전문인력 관계기관 워크숍(2회 개최)</li> <li>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생 워크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옥 전문인력 교육 및 자격 인증방안 연구</li> <li>한옥학교 및 한옥 전문인력 관계기관 워크숍(2회 개최)</li> <li>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생 워크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옥 시공 핸드북(1) - 민도리, 익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옥 시공 핸드북(2) - 주시표</li> </ul>	
한옥자산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옥 주거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 방안 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한옥분포 현황조사 - 대구, 광주 및 나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한옥분포 현황조사 - 대구 및 전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한옥분포 현황조사 - 서울 4개구, 경북 영주</li> <li>* 조사지역산정 지자체 공모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한옥분포 현황조사 - 서울 18개구, 경북 김천, 성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한옥분포 현황조사 - 서울 18개구, 경북 김천, 영주, 안동</li> <li>포항, 영천, 경산, 문경, 예천</li> </ul>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옥포럼 2회 개최</li> <li>국가한옥포럼 오픈사이트 구축</li> <li>한옥정책브리프, 단행본</li> <li>한옥정책브리프, 단행본</li> <li>2011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옥포럼 4회 개최</li> <li>국가한옥포럼 구축 및 고도화</li> <li>한옥정책브리프, 단행본</li> <li>2012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옥포럼 4회 개최</li> <li>국가한옥포럼 시스템 고도화 운영</li> <li>한옥정책브리프, 단행본</li> <li>201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운영</li> <li>제1회 지자체 한옥담당 공무원 워크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옥포럼 4회 개최</li> <li>국가한옥포럼 신규 시스템 모듈 개발</li> <li>한옥정책브리프, 단행본</li> <li>한옥정책브리프, 단행본</li> <li>2014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운영</li> <li>제2회 지자체 한옥담당 공무원 워크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옥포럼 3회 개최</li> <li>국가한옥포럼 운영관리</li> <li>한옥정책브리프, 단행본</li> <li>2015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운영</li> <li>제3회 지자체 한옥담당 공무원 워크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옥포럼 2회 개최</li> <li>국가한옥포럼 운영관리</li> <li>한옥정책브리프, 단행본</li> <li>2016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운영</li> <li>제4회 지자체 한옥담당 공무원 워크숍</li> </ul>	

3

3



## 국가한옥센터의 성과

### 보편적 건축유형의 “근본을 찾다”

한옥에 담긴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 한국 건축 아카이브

- '12 김동현 선생 소장자료
- '13 신영훈 선생 소장자료
- '14 신영훈 선생 소장자료
- '15 '와본 김동현 구술집' 발간
- '16 장기인 선생 소장자료
- '17 (구)해라시아 문화연구소 소장자료 / 삼아성 건축사사무소 소장자료
- '18 삼아성 아카이브 단행본
- '19 오가와 케이키치 건축자료

110,671건



한옥건축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 한옥 건축기법 연구

- '12 '한옥 짓는 책' 발간
- '15 '민도리식 짜임' 한옥 시공 핸드북
- '15 '익공식 짜임' 한옥 시공 핸드북
- '16 '주심포식 짜임' 한옥 시공 핸드북
- '17 '우물마루' 한옥 시공 핸드북



4

## 국가한옥센터의 성과

### 보편적 건축유형을 “탐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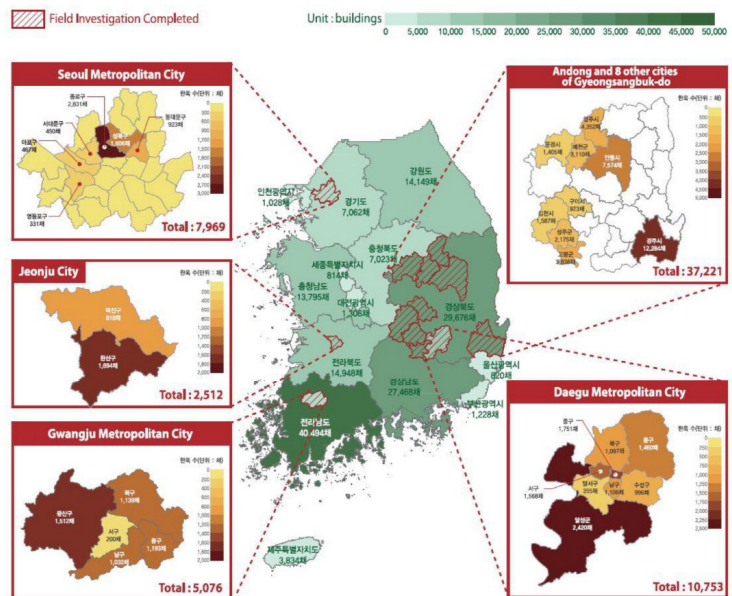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옥 진흥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 전국 한옥 전수조사

65 기초자치단체

- '12 대구 동구, 나주 음성
- '13 대구광역시 전역, 전북 전주
- '14 서울 한양도성 밖 4개구, 경북 영주
- '15 서울특별시 전역, 경북 김천·성주
- '16 광주광역시 전역,  
경북 경주·안동·포항·영천·경산·문경·예천
- '17 경북 영양·청송·영덕·봉화·울진
- '18 경북 의성·칠곡·울릉·상주·군위·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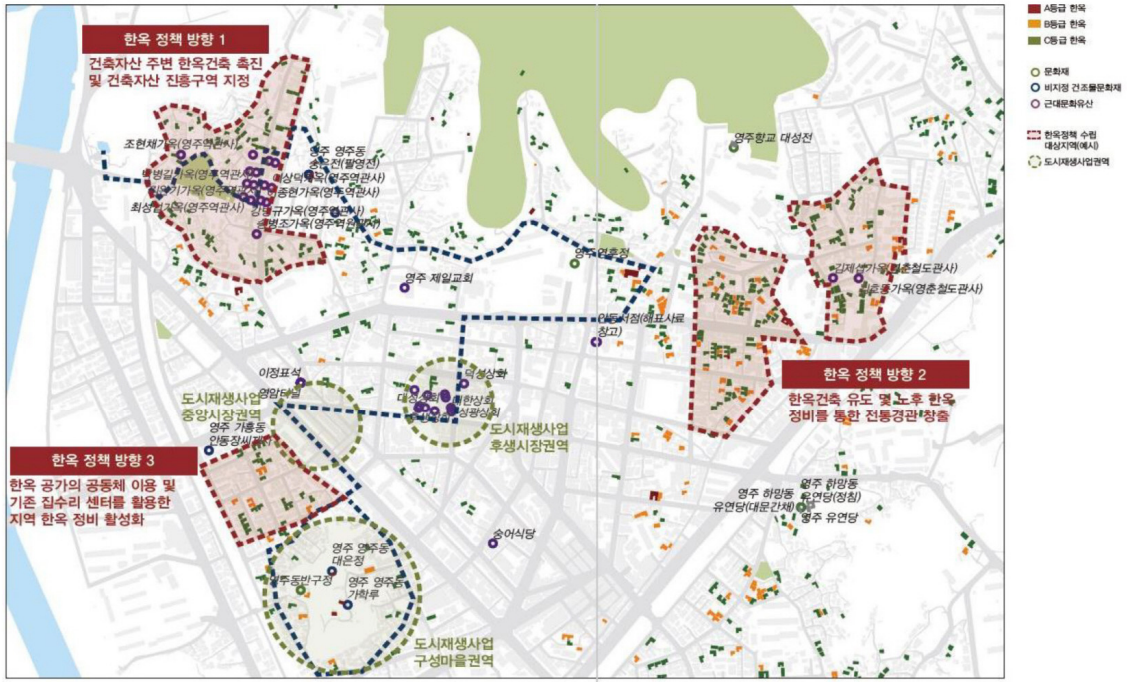
약 90,000 채



5

## 국가한옥센터의 성과

### 보편적 건축유형을 “탐색하다”



6

## 국가한옥센터의 성과

### 보편적 건축유형의 “기틀을 마련하다”

1

한옥 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법」 및 하위규정 마련

한옥건축 확산을 위한 **한옥 기준 마련**

4

한옥건축기준, 한옥 등 건축자산 조례 제정 지원, 한옥마을 계획 가이드라인, 신규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길라잡이

47

시의성 있는 한옥 정책의 제안 **한옥정책브리프(제1호~제47호)**

7



## 국가한옥센터의 성과

### 보편적 건축유형의 "기틀을 마련하다"



8

## 국가한옥센터의 성과

### 보편적 건축유형의 "널리 알리다"

**13** 한옥의 가치를 나누기 위한 **단행본 출간**

열린 소통과 나눔을 위한 **한옥 포럼, 공무원 및 실무자 워크숍 개최**

**86,016** 한옥 정보의 체계화 및 확산을 위한 **국가한옥포털 운영**

9

## 국가한옥센터의 성과

### 보편적 건축유형을 “널리 알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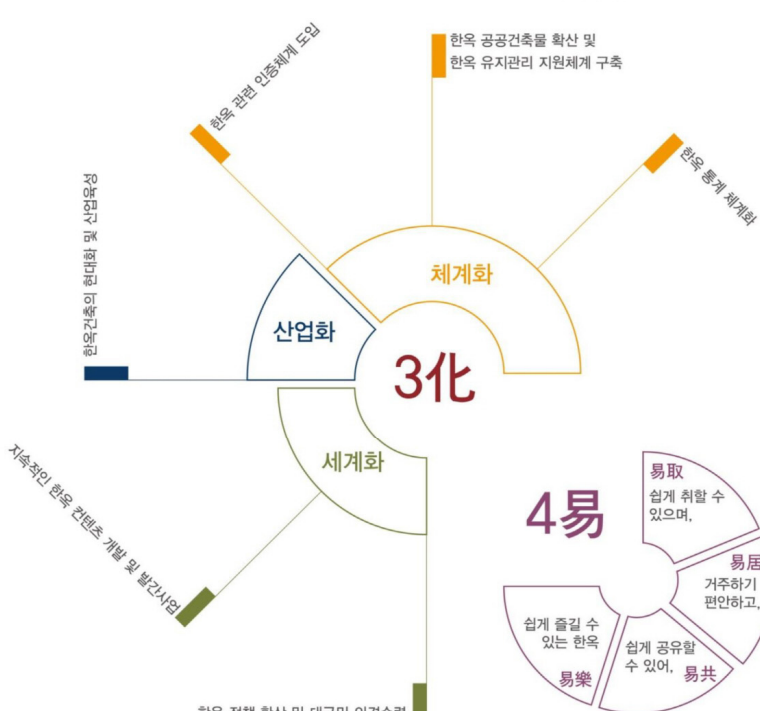




10

## 국가한옥센터의 역할

### 보편적 건축유형으로의 “자리매김”



11

## 한옥관련 환경의 변화

### ◦ 한옥 시장의 변화

- 2001년 100채를 넘어선 신축한옥이, 2006년 500채, 2011년 1500채 넘어서며 활성화의 정점
- 전남 행복마을조성사업의 안착으로 인한 신축한옥의 수는 1000여 채로 감소하였으나(2012년~) 전남 이외 지역의 한옥 신축이 활성화 되었으며(한옥 지원관련 조례를 92개 지자체에서 마련 중) 증개축, 유지·보수관련 시장 규모가 증가
- 지자체 주도의 한옥마을 조성사업 증가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내포신도시, 경주, 공주, 부여 등)

### ◦ 주거 패러다임의 변화

- 한옥의 양적 증가에서, 거주자의 한옥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한옥설계자에 의한 다양한 디자인의 한옥과 한옥기술개발 R&D 사업의 기술을 적용한 현대주거 성능이 확보된 신축 한옥이 증가
- 최근 5년간('13~'17) 단독주택 거래량은 47%나 증가  
(특히, 2015년 수도권의 단독주택 거래량은 2만 4천 건으로 51%나 증가)



전국 단독주택 거래량 추이('13~'17)  
한국감정원

기관명	사업명
중앙정부	국토부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종료 후 신규'18), 시범사업지원(종료) // 한옥기술개발연구 사업(한옥기술 개발 R&D 3차 진행 중), 제도기존 개선, 건축자산 연계형 도시재생 특화사업
	농림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4000억원, 한옥우대) 한옥표준설계도서보급,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 (전통미를 살린 농촌주택모델 개발) 등
	문화부
문화재청	전통한옥 개보수(종료) // 한옥마을 관광인프라·콘텐츠지원(452억원), 한국적 생활 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한옥숙박편의시설 지원사업, 고택·종택 명품화사업, 한옥홍보)
	고도보존육성사업(국비 503억원, 경주공주부여익산) 등
	산림청
	국산재 이용 한옥표준모델 개발 등

중앙정부 한옥 적용가능 사업 12

## 한옥관련 환경의 변화

### 북한과의 한옥 분야 협력을 위한 과제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사업(2007년~ )
  - 2007년~15년 총 18,700㎡ 발굴(진척률 56.7%)
  - 사업자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발굴(국립문화재 연구소)가 주축
  - 경령전(제사 공간), 건덕전(정무 공간) 등 50동 건물지 확인, 40여동 발굴조사 완료
  - 금속활자(세계 최고(最古) 추정), 원통형 청자, 용두기와 등 13,500여점의 유물 발굴
  -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사업 (2018,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2호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 지원)
- 겨례말근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2004년 협력사업 승인 )
  - 남북 각각 기존어휘·새어휘 발굴·집필작업 후 남북간 의견 수렴, 공동집필(2018)
- 대북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2018)
  - 국내외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사업



[http://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700975&sectionId=b\\_sec\\_1&pageIndex=1&pageUnit=10&strWhere=&strValue=&sdate=&edate=&category=&mn=NS\\_01\\_02](http://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700975&sectionId=b_sec_1&pageIndex=1&pageUnit=10&strWhere=&strValue=&sdate=&edate=&category=&mn=NS_01_02), 2018.10.14.21:42



## 국가한옥센터의 역할

### 대북 관련 한옥분야 과제

- **한옥 용어 및 조사**
  - 남북한 한옥분야 기술·용어의 차이에 대한 정리  
→ 『한옥용어사전』, 『한국건축사』 공동 편찬
  - 한옥조사 방법론과 tool을 활용한 북한의 한옥조사  
→ 개성악사보존지구 내 300여 채의 한옥, 개성한옥보존사업
- **한옥인력양성 및 생산능력 제고**
  - 남북 대목수, 문화재 유지·보수 기술자 교류 사업
  - 국토부 한옥인력양성사업을 활용한 북한의 건축사, 목수 양성 사업
  - 목재, 석재, 철물 등 한옥관련 자재 생산능력 진단 및 공급방안 마련
- **한옥 보존 및 보급 활성화**
  - 남북한 건축유산 유네스코 등재 사업
  - 기존 한옥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원
  - 공공 한옥건축물 보급확대  
→ 학교, 유치원, 보육원 등 교육시설을 시작으로 공공용도로 확대(한옥공모전과 연계)
- **기타**
  - 국토부 한옥공모전의 대상을 북한까지 확대, 주요도시 전시
  - 북한의 한옥을 한옥 지도에 포함(조사한옥, 위성지도를 활용한 잠정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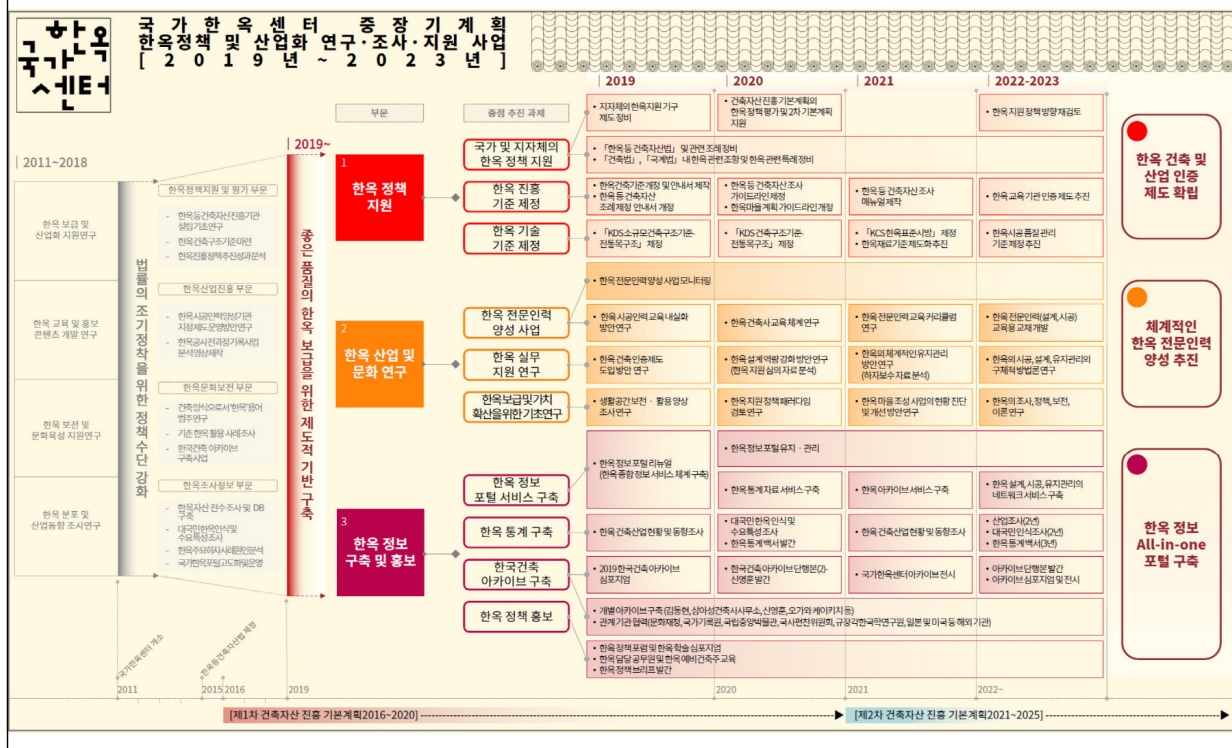


<https://www.voakorea.com/a/inter-korea-relation/1948553.html>  
2018.10.14.21:17

분단 이전, 공동의 문화를 형성하였던 시기의 건축자산인 한옥  
남북 상호간의 문화적 동질성 확인 가능

14

## 국가한옥센터의 새로운 여정







주제발표

# 2

## 북한 한옥의 재조망 - 실향민들의 기억과 재생

강영환 |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북한 한옥의 재조망 - 실향민들의 기억과 재생

강영환 |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해방이후 남북분단의 상황 속에서 북한 전통주거에 관한 연구는 명맥이 단절된 채 60년이 지났다. 현재 학계에 알려진 북한의 전통주거는 일제시기 일본인들의 단편적 저술과 60년대 북한학자들의 성과뿐이다. 이 분야 연구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새로운 자료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북한지역 출신 실향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전통주거의 모습들을 재생함으로써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통하여 해방 이전 북한 주거의 지역성, 계층성, 시대성을 새롭게 조망한 것이다. 1996년부터 약 3년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북한지역 한옥의 사례는 함경도61건, 평안도 44건, 황해도 36건, 도합 141건의 사례에 달한다.

이 사례들은 배치평면도 뿐만 아니라 당시 거주인들의 지역이나 계층, 건립연대와 연결되어 있기에 시대, 계층, 지역적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당시의 공간사용에 관한 정보가 생생하게 담겨있어 주거공간의 기능과 구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기억의 불명료성이나 표현방식의 비전문성에도 불구하고 북한 전통주거를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러한 기억자료들이 기존 연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 북한 한옥의 재조망

## 실향민들의 기억과 재생

울산대 건축학부 교수 강영환

### 1. 연구배경

#### 1) 한국 전통주거의 지역성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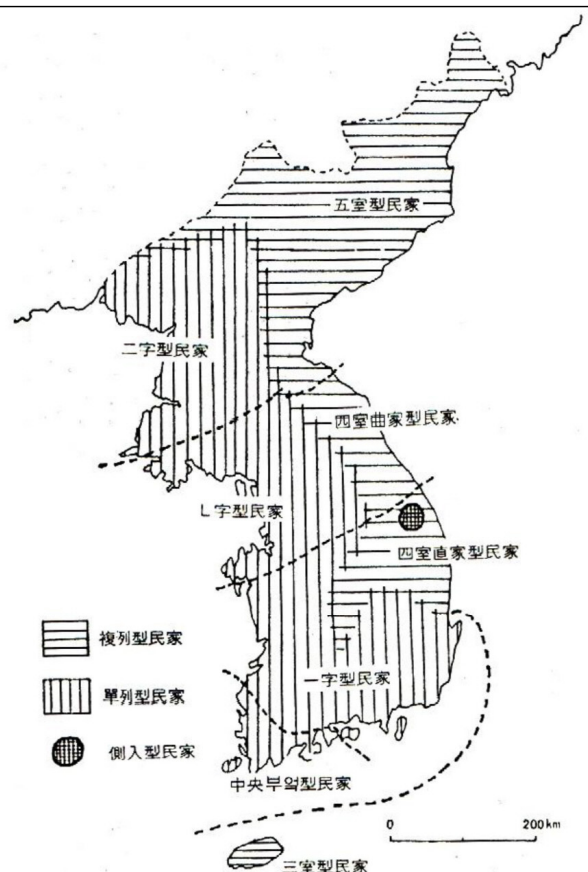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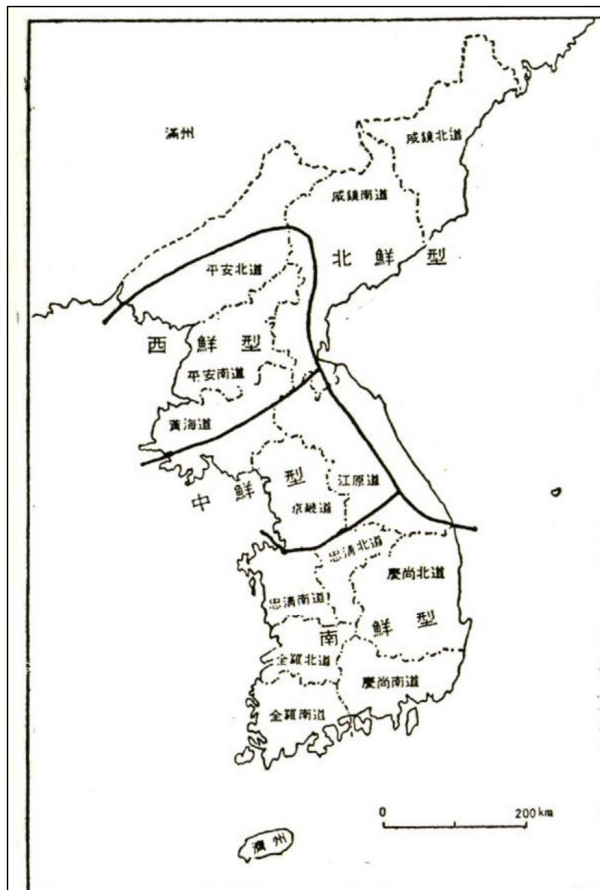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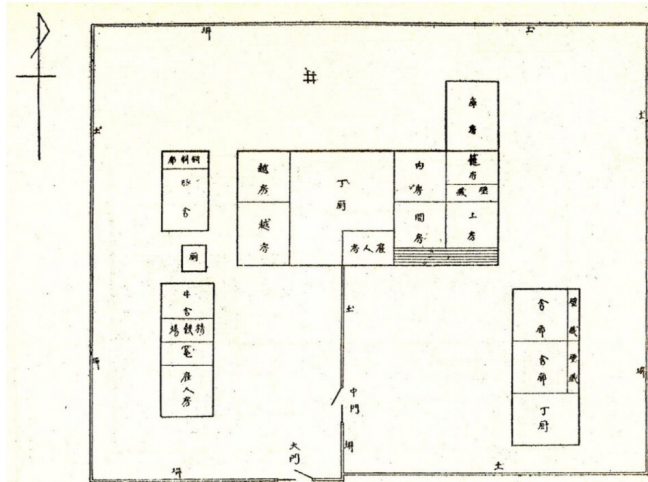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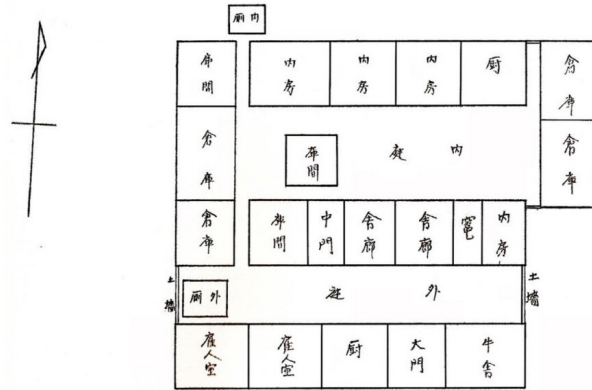
- 근대적 연구는 일제시기 시작
- 일제시기 연구는 지리학, 민속학에서 주도
- 보편성, 대표성 중농주거에 치중
- 살림채 평면형식에 중점
- 해방 이후 북한연구 단절
- 사례의 부족, 정밀성 부족
- 계층적 편협성, 지역적 불균형
- 해방 이후 까지 일제시기 연구 성과에 의존

表 1 岩槻 (1924) 以降の諸研究における民家型分類の対照表

	(a)	(b)	(c)	(d)	(e)	(f)	(g)	(h)	(i)	(j)	(k)	(l)
岩槻龍之 (1924)	北 鮮 型	-	-	西 鮮 型	南 鮮 型	-	-	京 城 型	中 鮮 型	-	-	-
野村孝文 (1938)	北 鮮 型	-	-	一 般 型	-	-	-	都 会 型	済 州 島 型	-	-	-
李 泳澤 (1965)	關 北 型	-	-	關 西 型	南 部 型	-	-	中 部 型	(南 部 型)	-	-	-
鄭 慶雲 (1972)	女 眞 民 族 系 田 宇 式	-	-	漢 民 族 系 嶺 間 並 列 型	南 方 系 + 漢 民 族 系	-	-	南 方 系 + 漢 民 族 系 + 集 団 都 市 型	南 方 系	-	-	-
鄭 慶雲 (1974)	東 北 地 方 民 家	-	-	西 北 地 方 民 家	西 南 地 方 民 家	-	-	東 南 地 方 民 家	中 部 地 方 民 家	済 州 島 民 家	-	-
張 保雄 (1974)	山 地 型	-	-	關 西 型	南 部 型	-	-	中 部 型	島 嶼 型	-	-	-
張 保雄 (1980)	複 列 型 五 室 型 四 室 型 曲 家 型 直 家 型 (側 入 型)	-	-	單 列 型 直 家 型 二 字 型 一 字 型 中 央 距 離 型	曲 家 型	-	-	複 列 型 複 列 型 三 室 型	-	-	-	-
李 悛善 (1992)	集 中 型 (一 棟 型) 長 方 型 集 団 間 有 大 庁 無 大 庁 有	-	-	分 離 型 (分 棟 型) 直 線 型 大 庁 無 大 庁 有	直 角 型 凹 型	-	-	集 中 型	-	-	-	-

※上欄の(a)~(l)は図1の各類型に対応

- 사례수의 한계
- 중소농 주거 편중
- 지역, 계층정보 부족
- 연혁, 공간이용 정보 부재
- 살림채 평면도 위주
- 단선 스케치 도면 (창호표현 부족)
- 외부공간 이용행태 부족



### 3) 해방이후 북한한옥의 변화

- 1964년: 사회주의 농촌테제
- 집단화, 현대화
- 1970년대: 농촌주택의 표준화
- 문화주택 10만호 건설
- 해방 이후 현장접근 불가
- 새로운 자료발굴 중단
- 북한학자연구 일제시기 수준
- 북한 한옥연구 단절



## 2. 연구의 방법과 과정

### 1) 기억의 발굴

- 현장조사 불가능
- 공간경험 기억의 지속성
- 재현의 가능성

#### <방법론적 한계>

- 기억의 불명료성
- 기억의 부정확성
- 표현의 신뢰성
- 검증의 어려움

- 조사방법: 설문지 및 도면 작성
- 조사대상: 북한출신 실향민
- 월남 당시 15세 이상
- 1차 연구: 1995년 부산, 경남지역
- 2차 연구: 1996년 인천, 강원지역



## 2) 기억의 표현과 재생

- 서술적 표현
- 도면표현
- 설문지 제작
- 설문지 배포 및 회신
- 1차도면 제작
- 자료제공자 보완 및 확인
- 2차 수정도면 제작
- 자료제공자 도면보완 및 확인
- 3차 수정도면 제작
- **자료제공자 최종 도면확인**
- 자료확정

## 설문지

※ 빈칸에는 직접 기록하여 주시고 □ 안에는 √ 표시를 해주십시오.

## □ 현재의 인적 사항

성명	서승우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전화번호				
출생연도	1950년			

## □ 북한에서의 생활

당시의 주소	평안남도 격천군 풍악면 풍곡리
당시의 가족구성	가족수 -
당시의 가족관계	□ 조부 □ 조모 □ 부 □ 모 √
당시의 생업	√ 농업 □ 수산업 □ 공업 □ 상업
당시의 경제규모	□ 상 √ 중 □ 하
	# 농업일 경우 논 100평, 밭 200평

## □ 건설 경험

집짓기에 참여해 본적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참여했다면 어떤일을 해 보셨습니까?	□ 풍수 □ 대목 □ 외공 □ 석공 □ 토역 □ 소목 □ 기타( )

## □ 북한에서의 마을 모습

마을의 위치	□ 도시 √ 농촌 □ 이촌
마을의 지형	√ 산지 □ 평야 □ 벼도기
마을의 규모	9호 (대략적인 戶수)

## □ 주택안에서의 건물이름과 형태

건물이름	규모	형태	평면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예) 뒷채	전면 4칸 측면 2칸	1자형	외통집	딱작지붕	기타
예) 아랫채	전면 4칸 측면 2칸	1자형	외통집	우진간지붕	초가

윗채	전면 4칸 측면 2칸	1자형	외통집	맞배지붕	천연스레트
아랫채	전면 5칸	1자형	외통집	맞배지붕	천연스레트
옆채	전면 2칸	1자형	외통집	맞배지붕	천연스레트

## □ 당시 주택내에 있었던 각방의 명칭과 용도를 기입해 주십시오

방의 명칭	각 방의 용도
예) 안방	안주인 기거
예) 사당방	남자 (집안에서 제일 못어는) 기거

윗채	아랫방에는 안주인, 윗방에는 혼인한 아들 부부가 기거 사당방에는 바깥 노인이 기거
아랫채	아랫방에는 소작인이 기거

## ▣ 북한에서의 주택모습

건물 건설 연도	_____년, 또는 지금으로부터 _____년전	
대 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대문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소슬대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평대문 <input type="checkbox"/> 사립문 <input type="checkbox"/> 기타( )	
담 장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담장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돌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흙담 <input type="checkbox"/> 흙돌담 <input type="checkbox"/> 편담 <input type="checkbox"/> 기타( )	
담장의 높이	대략 _____ m 정도	
툃마루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 다음장에서는 밑에 있는 보기를 참고하시어, 첫줄에 있는 예와 같이 빈칸에 기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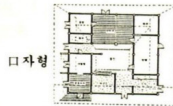
[ 보 기 ]

- ### 1. 형태 (평면의 형태를 말함)

—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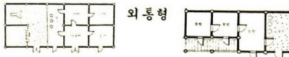


□자



2. 평면 (방의 배열이 한줄로 되어 있는지, 두줄로 되어있는지를 말함)

양통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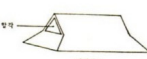


- ### 3. 지붕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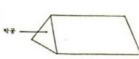
우진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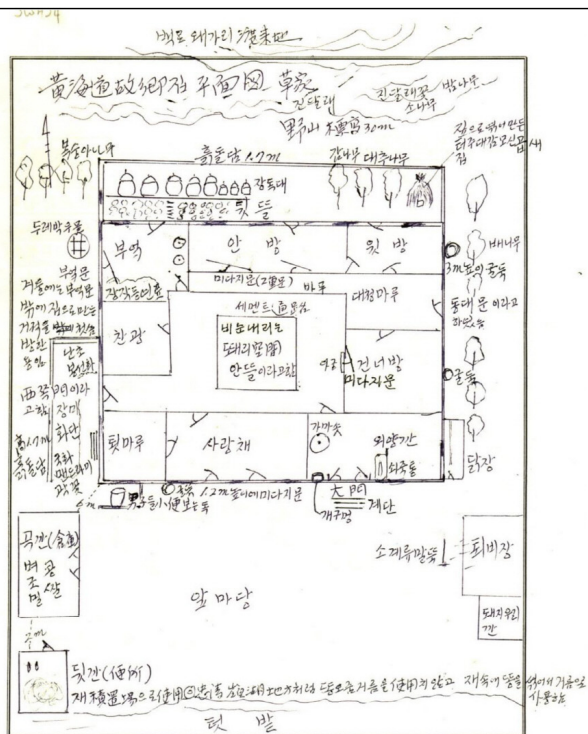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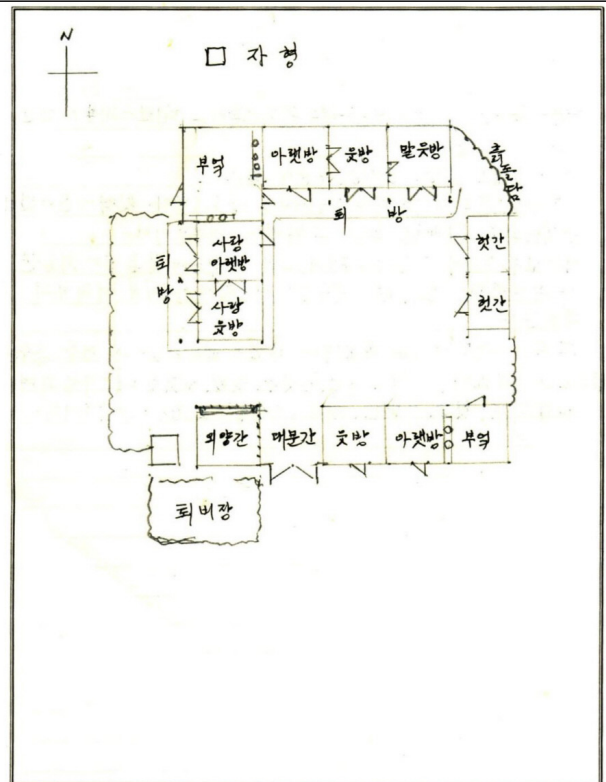
## 팔작



맞배



- 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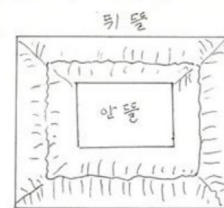


家屋全体が外壁、内壁も全部消石灰で塗り付けた。赤白の二色で塗られた。  
 下は高台の上に敷いた土に白灰を塗った。  
 土間に土間がある。土間は小川の水で洗った。土間は洗った。

黄海道地方的小地主以上的上流農家の  
典型的な模範的住宅。

普通대리점 이라고 하지요

例 2

 $0\frac{1}{2}$  12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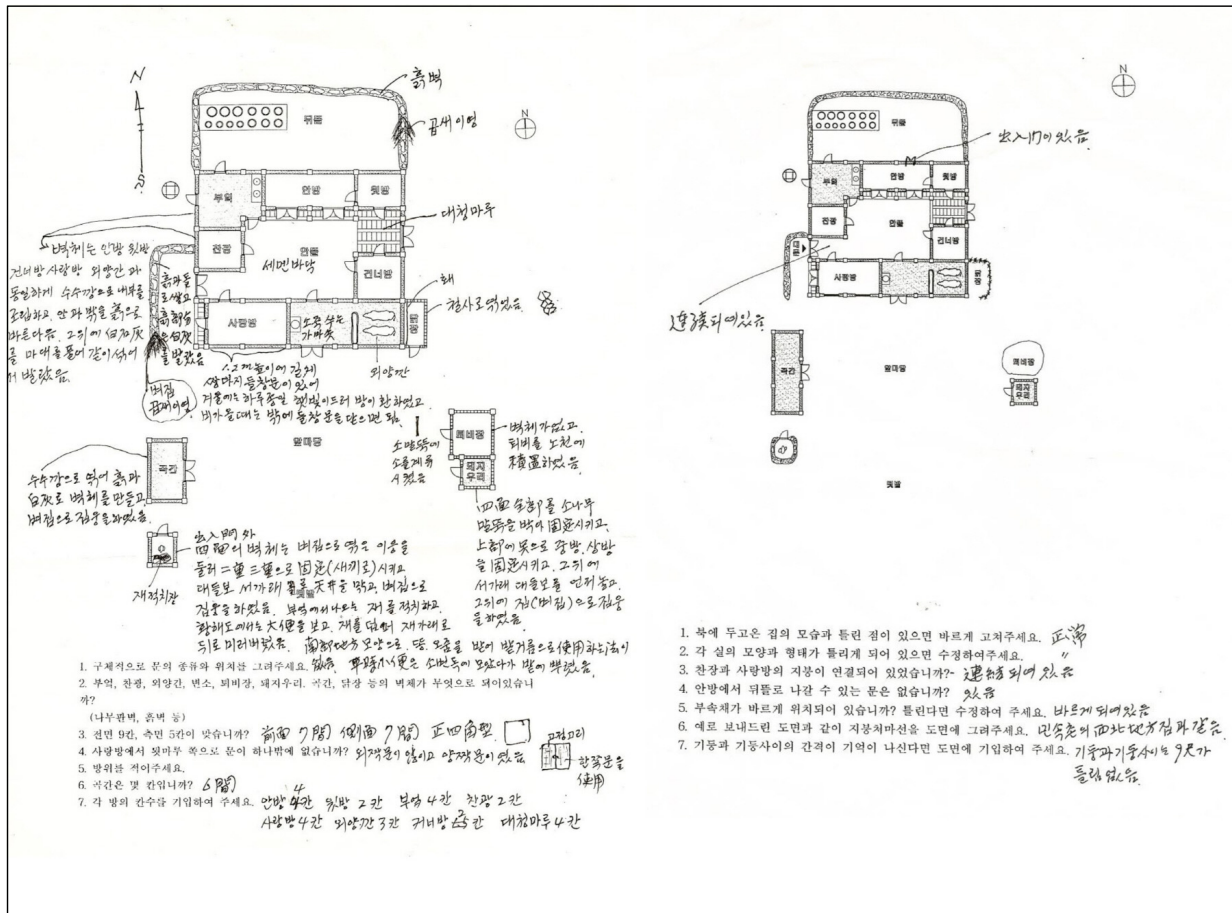
집(버섯집)으로 영을  
내리며 연두봄에  
한번씩 집을  
한

예시 前面에서 본 집의 평면도



④ 동이 크게 두어번까지  
 2월 21일 12시에 前南門밖만 돌을 10칸만 걸어서 서둘러면서 白개와 모래를  
 碎碎하며 모든 반쪽찬을 알을 바를 때로 비바람(風雨)의 형식을 方止시켰을  
 상물까지 있었음  
 (5) 807년 7월 25일 乙卯





### 3) 발굴자료

#### 최종도면

- 배치평면도
- 치수는 확인된 사례를 적용
- 3차에 걸친 수정, 보완 및 확인

#### 수집된 정보

- 소재지, 취락의 입지와 규모
- 가족규모, 가족구성
- 생업형태, 경제력, 계층인식
- 건축연대, 공간이용, 지붕형식
- 배치평면도: 공간구획, 창호, 공간명칭, 건물명칭, 외부공간이용



## II. 연구내용

- 지역별 발굴 사례수
- 함경북도: 13건
- 함경남도: 48건
- 평안북도: 20건
- 평안남도: 24건
- 황해도 : 36건
- 합계: 121건

### 1. 함경도 지역

#### 1) 실향민 발굴자료

- 다양한 주거형식
- 지역별 차이
- 계층별 차이
- 공간조직의 이해
- 담장과 외부공간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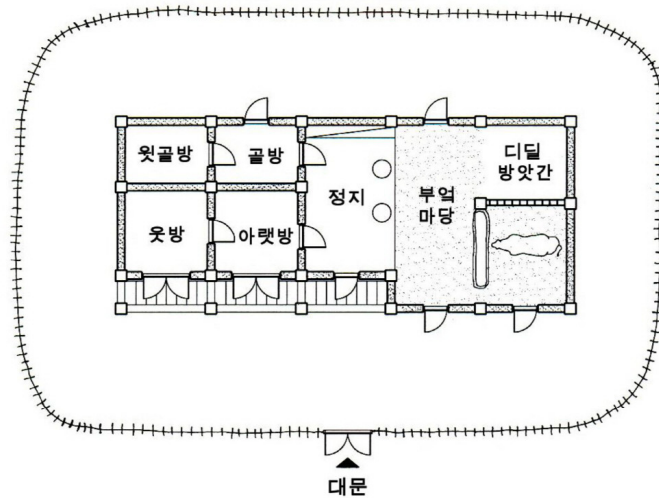


표7.◡ 살림채◡ 평면형식과◡ 계층별◡ 빈도◡

평면유형◡		하류◡	중류◡	상류◡
외통형◡	ㄱ자◡	0◡	1◡	0◡
	ㄷ자◡	0◡	0◡	1◡
양통형◡	3칸◡ 돌출◡	0◡	1◡	0◡
	4칸◡ 일자◡	4◡	0◡	0◡
	4칸◡ 돌출◡	2◡	4◡	0◡
	5칸◡ 일자◡	4◡	8◡	3◡
	5칸◡ 돌출◡	2◡	5◡	2◡
	6칸◡ 일자◡	0◡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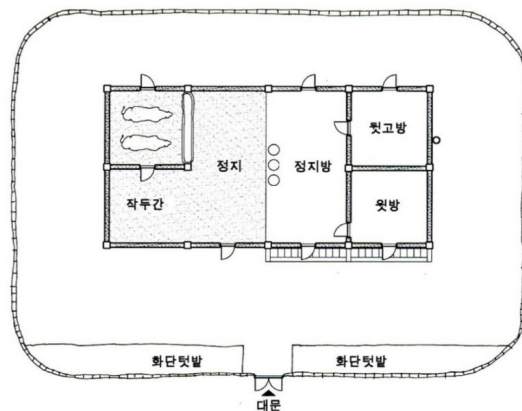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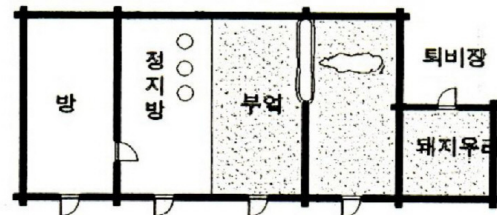
## 2) 보편 형식: 정주간이 있는 양통집

- 함경도 지역의 일반형
- 집중형 단동형 양통집
- 넓은 부뚜막 형태의 정주간
- 모든 공간 한 건물에 집중배치
- 허약한 영역성
- 방한, 방도에 유리
- 악취, 채광, 환기 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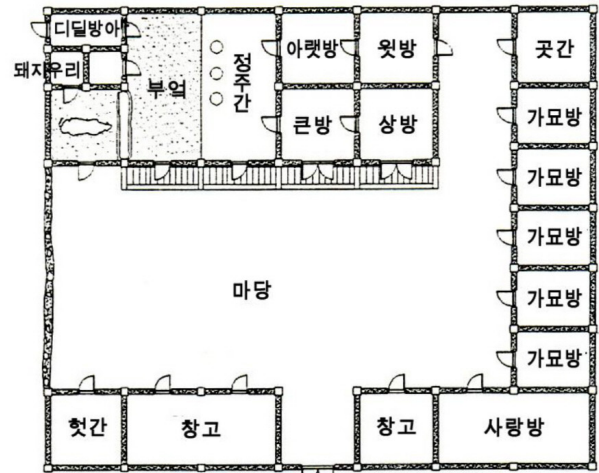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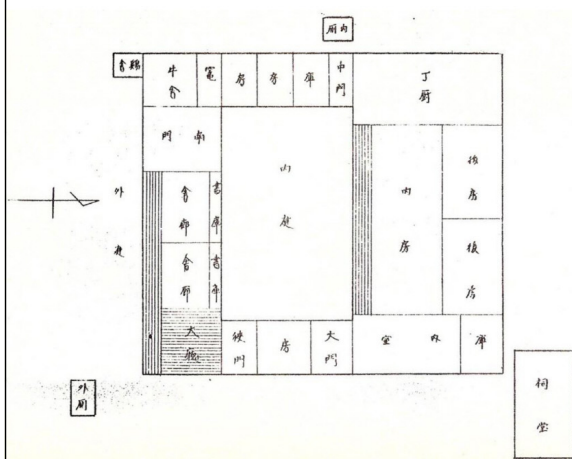
## 3) 특수형식: 개마고원의 집

함경도 양통집의 원초형  
화전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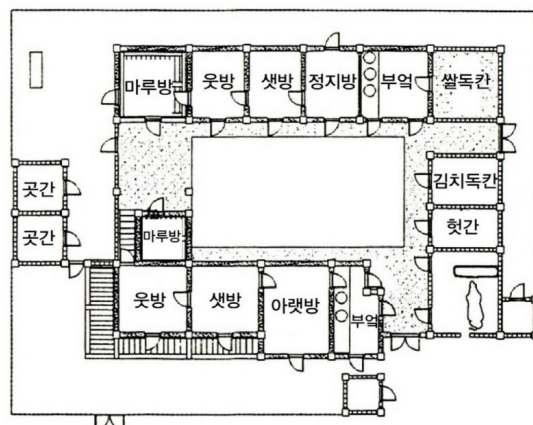
#### 4) 함경도 상류주택 사례1

- 살림채는 일반형과 동일
- 부속채의 증설
- 마당의 내부화
- 가묘배치의 특수성
- 경영형 부농주거사례



#### 5) 함경도 상류주택 사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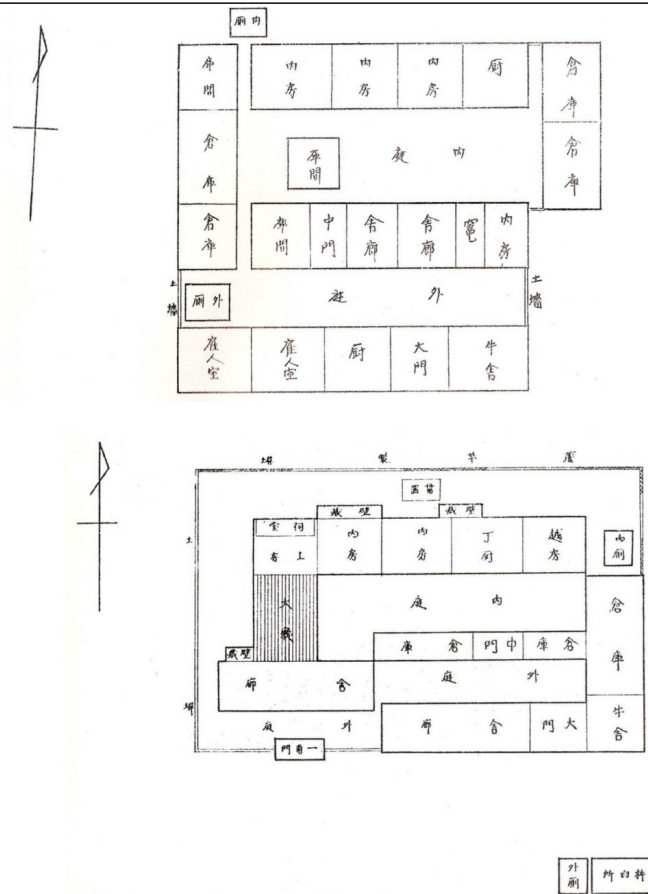
- □ 자형 사례
- 경영규모 15만평의 대지주
- 지주형 부농주거
- 사대부가의 형식
- 횡 장방형 안들





## 6) 기존 문헌의 상류주택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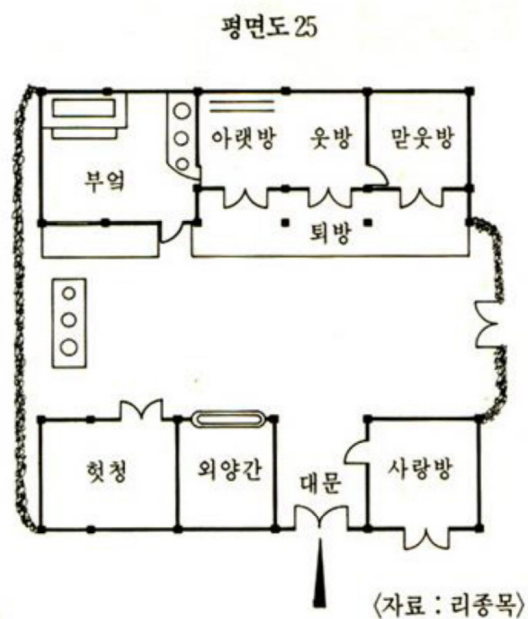
- 다수의 내정
- 내정과 외정의 구분



## 2. 평안도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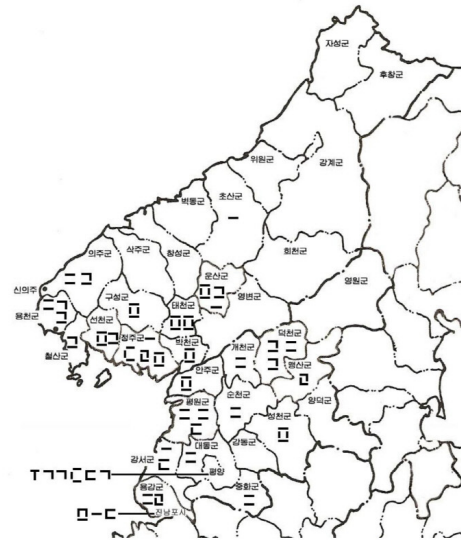
### 1) 기존연구

- 외통형(단열형 흙집형 평면)
- 二자형 배치(쌍채집)
- 마루 없음
- 지역별 세분화 부족
- 계층적 차이 미비



## 2) 평안도 실향민 제공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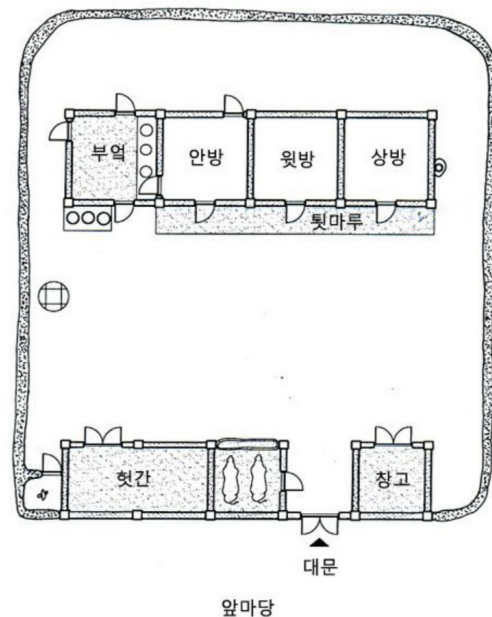
- 꺾음집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
- 지역적, 계층적 차이
- 평북 평야지에서는 튼ㄱ자 우세
- 평남 농촌에서는 이자집 우세
- 도시지역에서는 꺾음집 우세
- 양통집 미발견
- 외부공간의 분화



배치형식	하류	중류	상류
二자형	3	5	0
튼ㄷ자형	2	1	2
튼ㄱ자형	0	7	1
꺾음집 ㄷ자형	0	2	4
日자형	0	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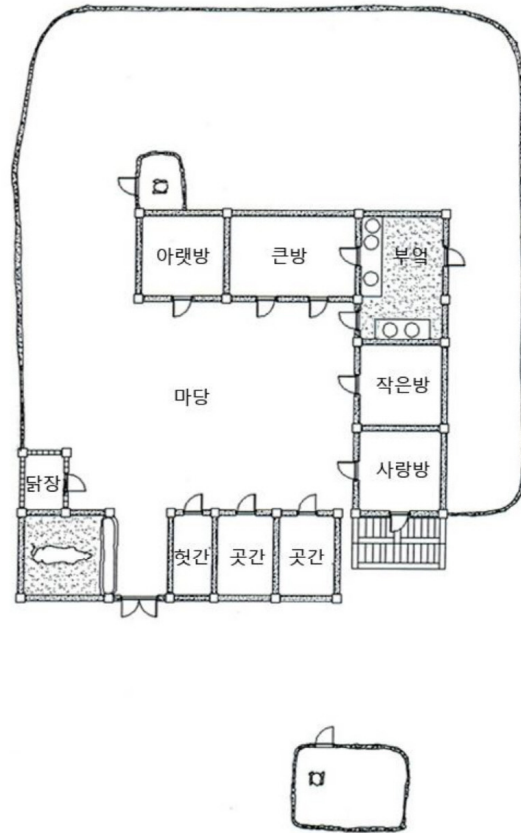
## 3) 二자집

- 가장 보편적 형식
- 2동 분산형
- 살림채와 대문채의 평행배치
- 장방형 안마당
- 마루의 미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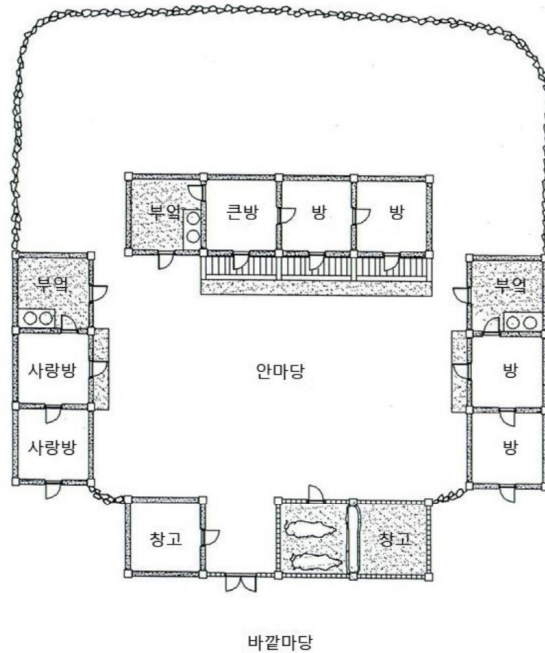
#### 4) 꺾음집

- 주로 살림채 ㄱ자형 꺾음집
- 부엌을 모퉁이에 배치
- 튼 ㄷ자집의 변형
- 도시지역에서 보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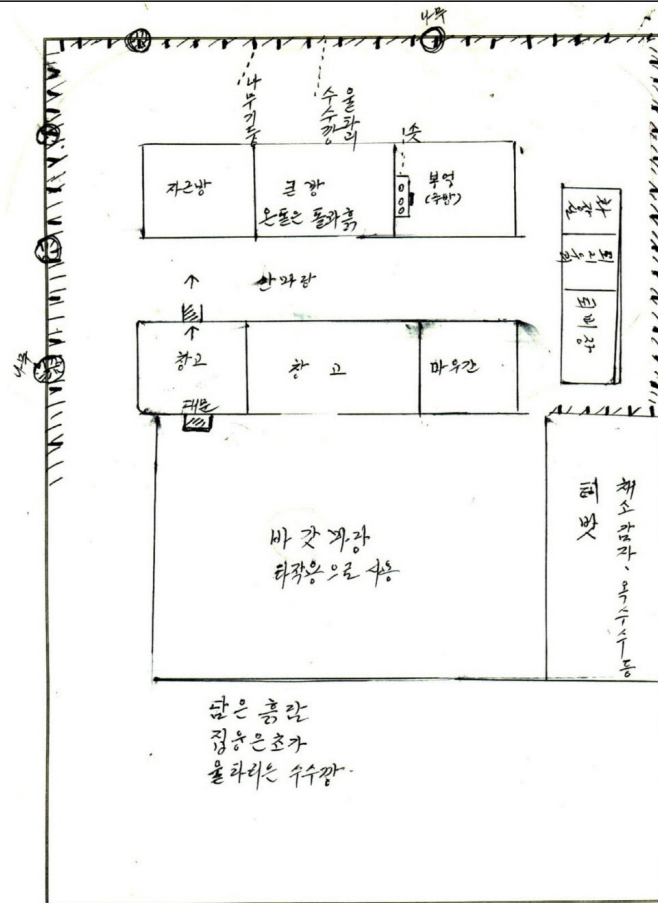
#### 5) 튼 ㄷ자집

- 4동 분산형
- 이자집의 양변에 부속채 배치
- 개방형 마루공간의 부재
- 내부통로의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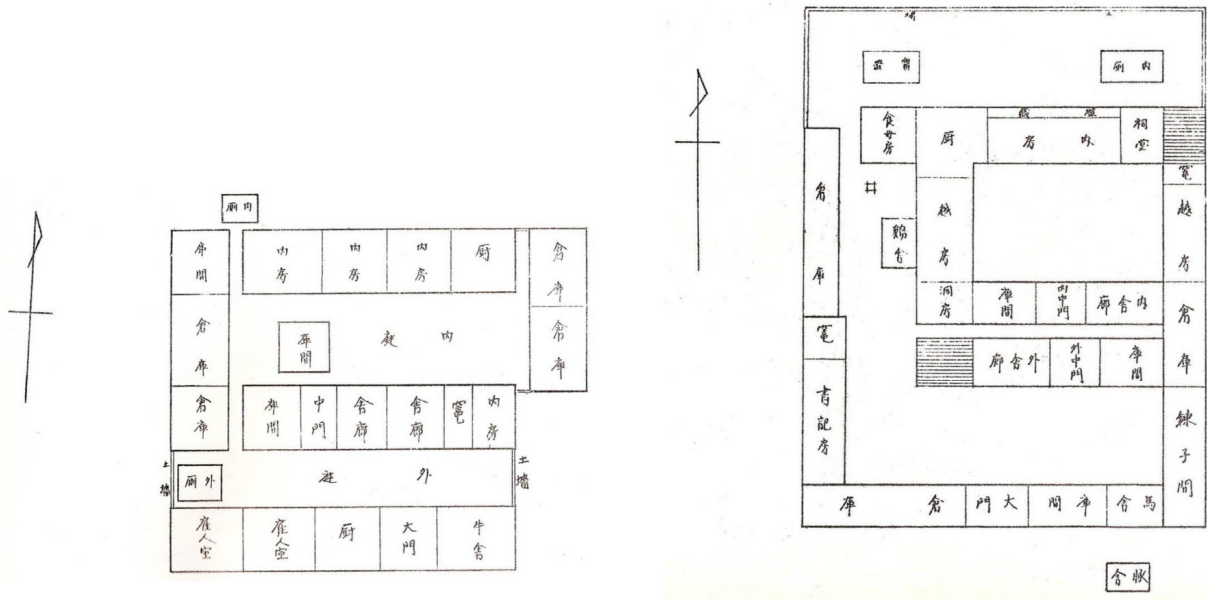
- 사유화된 바깥마당
- 탈곡, 건조 등 영농작업, 매질
- 넓고, 폐쇄적인 안마당



- 400년 전 대지주의 집
- 10여 동의 건물
- 다중적 레이아웃
- 다양한 외부공간
- 방도용 가벽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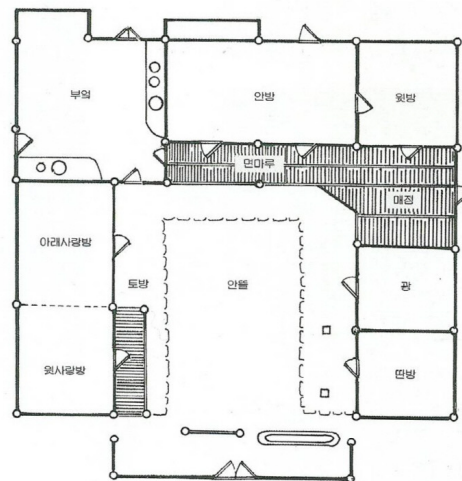
## 8) 기존 문헌의 상류주택 사례



## 3. 황해도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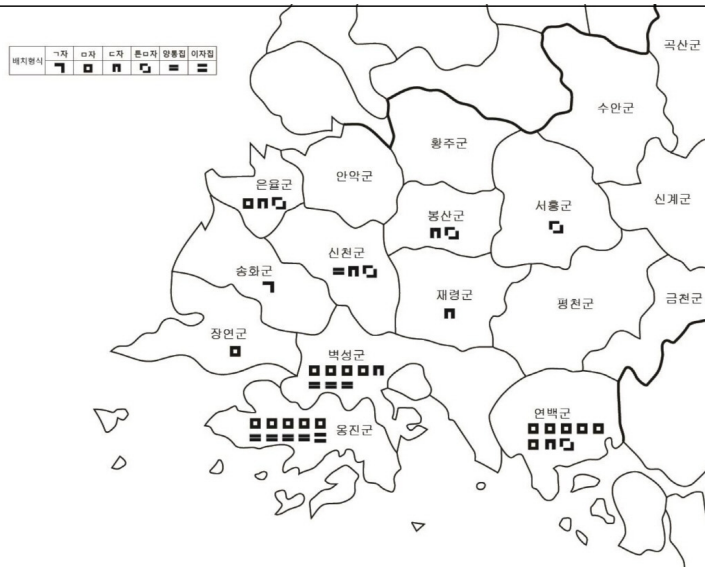
### 1) 기존 연구의 성과

- 지역성 모호(서선형, 중선형)
- 꺾음집, 대청이 있음(중선형)
- □ 자집
- 양통집
- <한계>
- 지역적 차별성 무시
- 사례수 절대부족
- 계층적 차이 미지



## 2) 황해도 실향민 제공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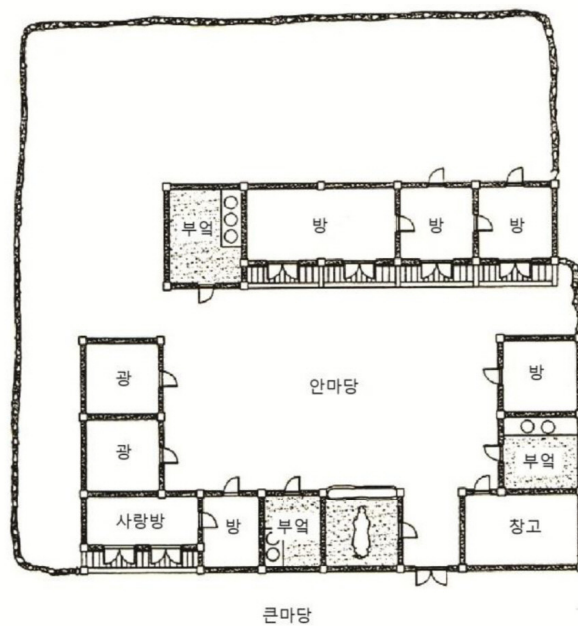
- □자 따리집 우세
- 양통집의 계층성
- ㄱ자, ㄷ자형 꺾음집
- 따리집과 양통집의 관계



계층	ㄱ자집	ㄷ자집	□자집	ㄷ□자집	양통집	이자집	합계
상류계층	-	-	3	1	-	-	4
중류계층	1	4	12	4	5	1	27
하류계층	2	1	1	-	3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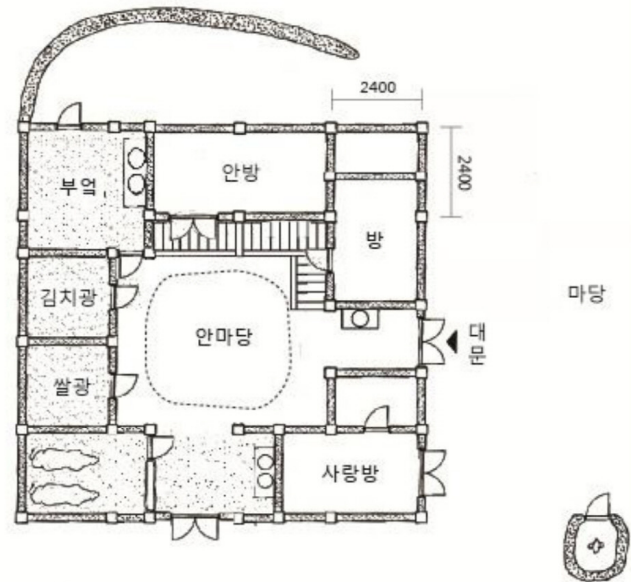
## 3) 황해도 튼 □자집

- 주로 2동으로 튼□자구성
- 3동 이상인 평안도 형식과 차이
- 안마당의 폐쇄성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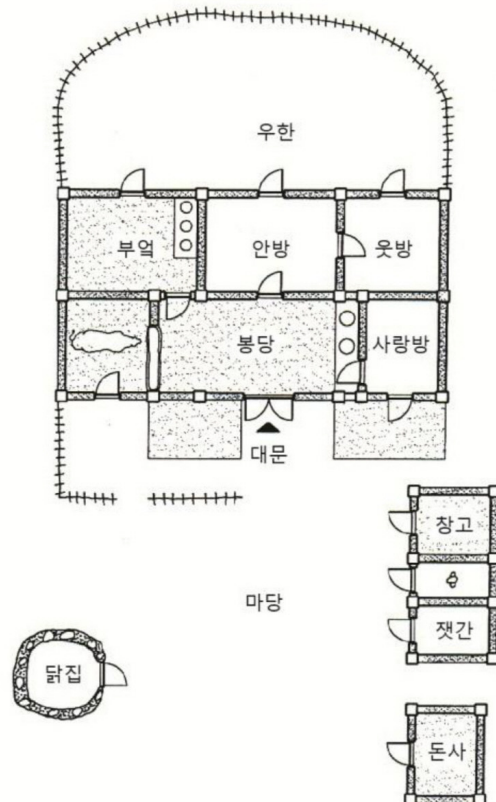
#### 4) 짚리집

- □자집, 황해도의 전형
- 짚리형의 지붕, 짚리집
- 지붕용마루의 □자구성
- 폐쇄적인 안마당
- 사랑방은 바깥마당으로 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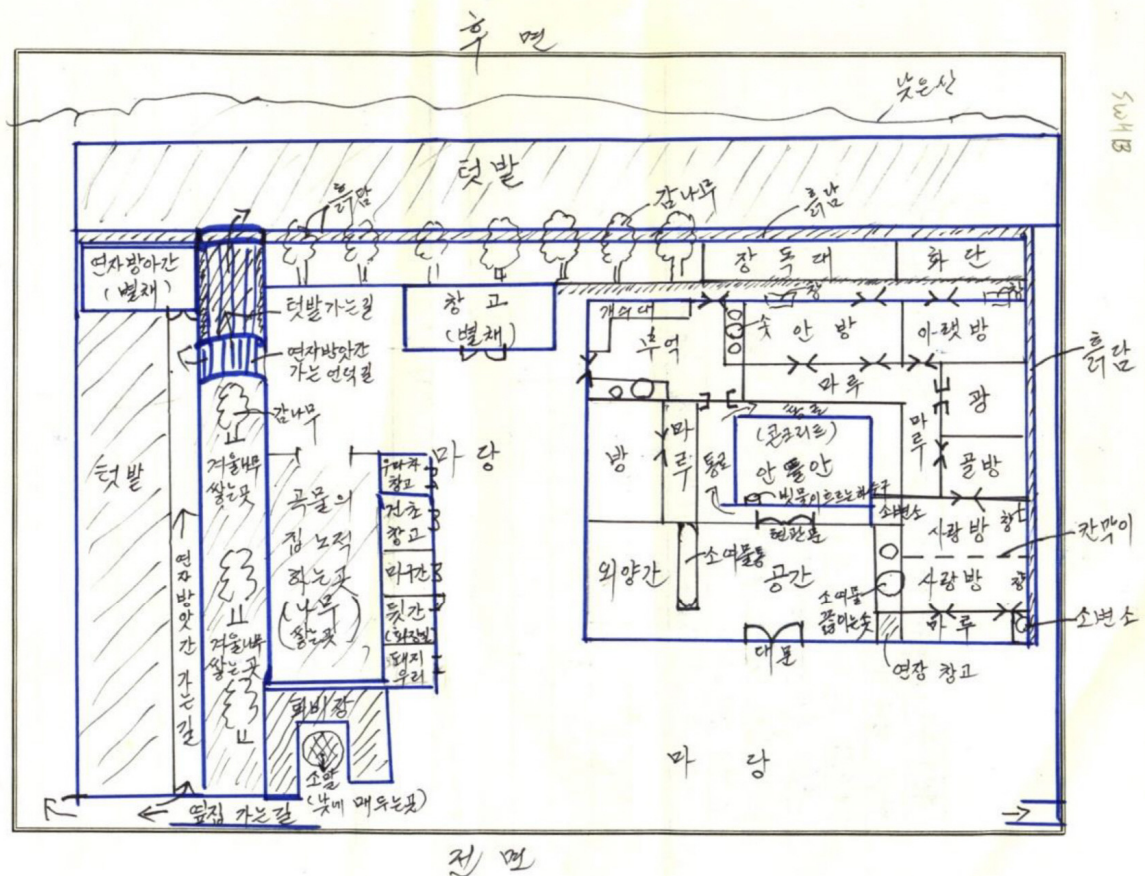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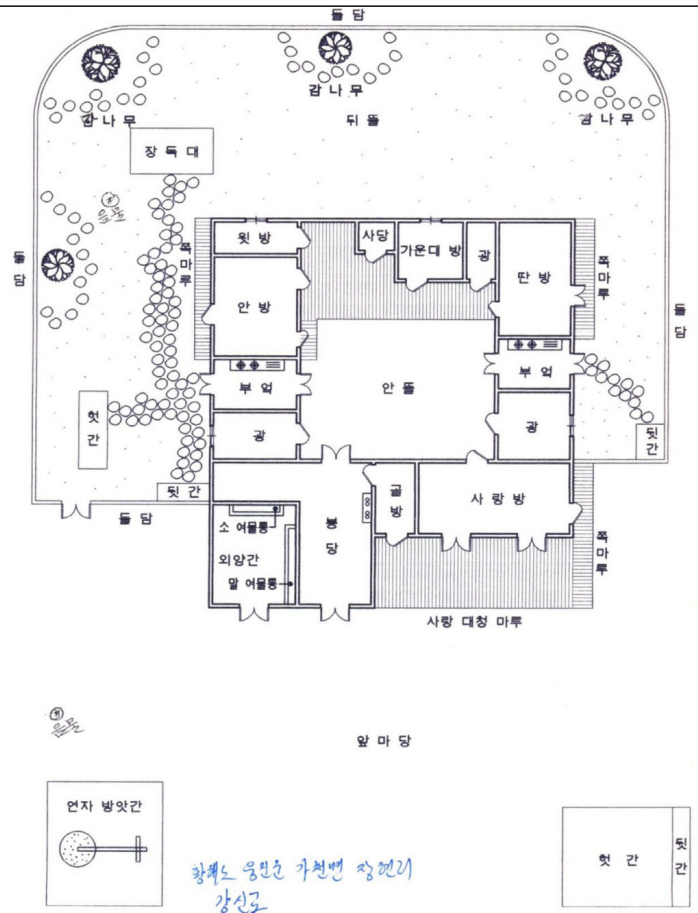
#### 5) 황해도 양통집

- 1동 집중형
- 정주간 없는 양통집
- 중앙에 봉당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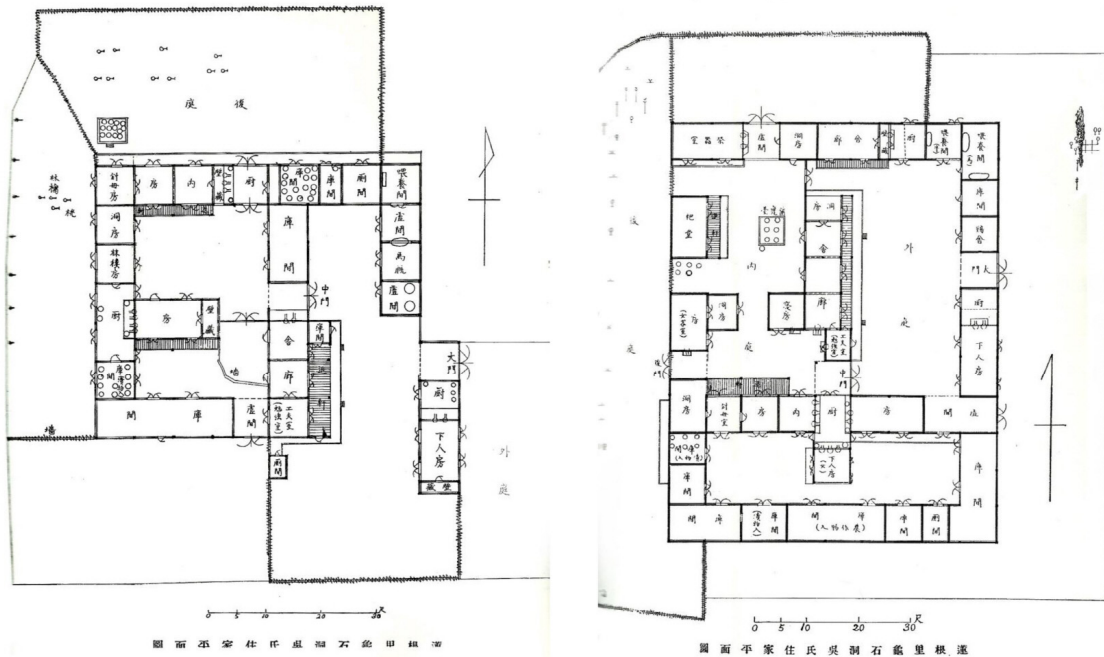




- 살림채는 □자집
- 다양한 부속채
- 마루의 발달
- 안채와 바깥채의 구획



## 7) 기존 문헌의 황해도 부농주택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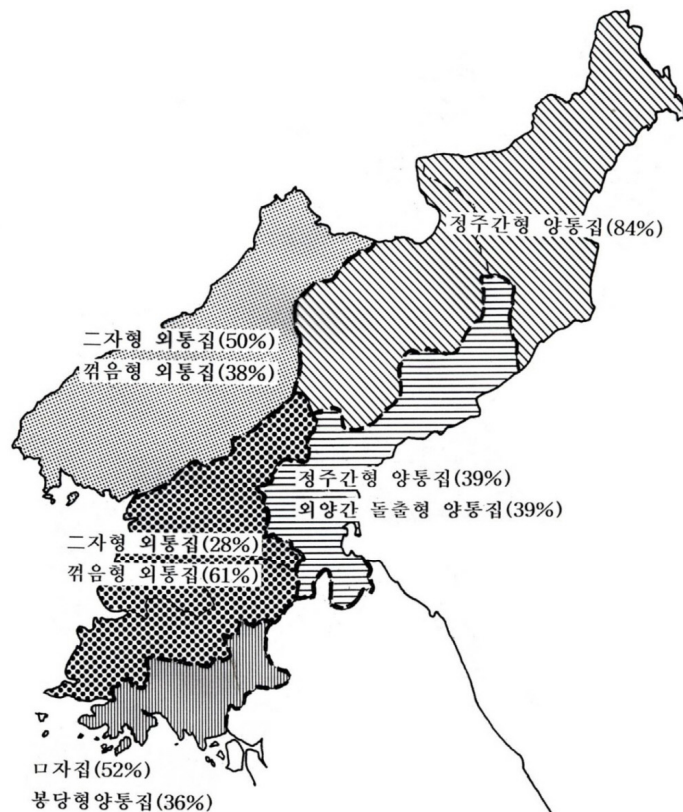


## III. 연구성과

지역별 공간조직의 성격  
다양한 지역적 형식  
다양한 계층적 형식  
각 주거형식의 기원과 발전  
각 형식간의 관계

연구의 한계

기억의 불명료성  
표현의 부정확성  
현장조사와 검증의 필요성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 3

## 남과 북, 콘크리트 전통건축의 형성과 특징

안창모 |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 남과 북, 콘크리트 전통건축의 형성과 특징

안창모 |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분단이 고착화 된지 70년 동안 서로 다른 체제하에 살고 있지만 남과 북이 변함없이 믿고 있는 것은 반만년을 공유해온 단일 민족인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문화적 동질성이다. 남쪽이 만들었지만 북도 거리낌 없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부르는 것도 우리는 하나라는 뿌리의식이다.

그러한 의식을 건축에서 찾자면 그것은 단연코 전통건축이다. 북에서는 민족건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콘크리트로 만든 전통건축이야기다. 우리는 콘크리트 한옥이라 부르지만 북에서는 현대조선식건축이라 부른다. 각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살아왔지만 외견상 비슷한 시설에서 비슷한 모양을 유지하고 있어 역시 우리는 하나라는 점을 확인 시켜주는 듯하다.

그러나 한발자국 안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재료도 같고, 비슷한 모습이지만 만든 이유가 다르며 각자의 사회에서의 평가가 천양지차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뿌리를 살펴보고 그곳에 비춰진 남과 북 건축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자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_우리가 몰랐던 북한의 한옥\_2018.10.19

## 남과 북, 콘크리트 전통건축의 형성과정과 특징

안창모/ 경기대 건축학과



### 1. 비목조 구법에 의한 목조건축양식 재현

- 전탑
- 석탑
- 벽돌
- 철근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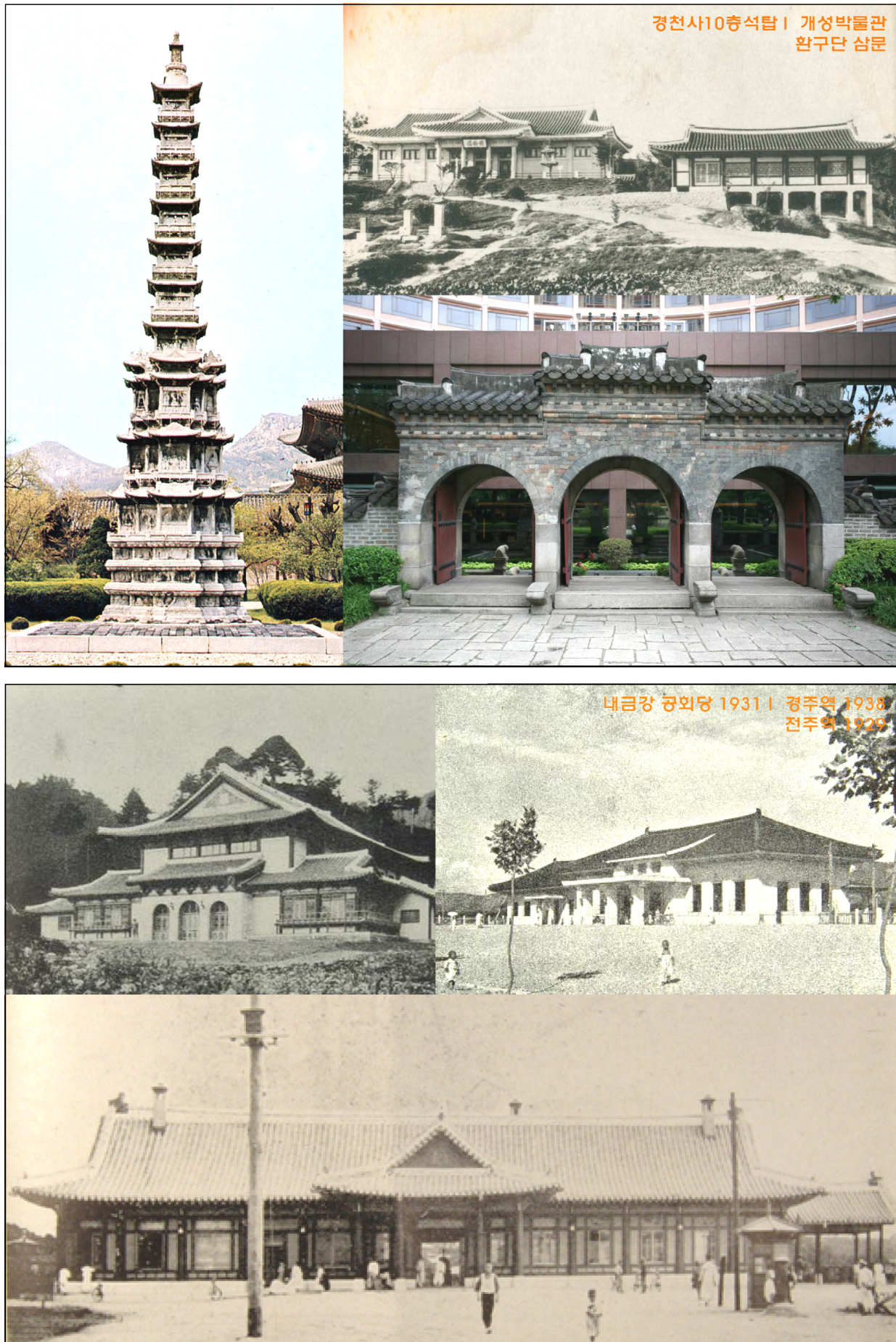


분황사 모전석탑, 경주/ 국보 제30호



[주제발표 3] 남과 북, 콘크리트 전통건축의 형성과 특징

안창모 |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 2. 南의 콘크리트 전통건축



### 워커힐 한국관, 엄덕문 관광과 전통건축







부여박물관, 김수근  
국립박물관의 왜색시비 논쟁과 전통건축





경주박물관, 이희태

찬란한 문화유산과 박물관의 현대화된 전통건축



경주보문단지

찬란한 문화유산의 관광 상품화와 전통건축







## 칠백의총 보수정화 준공식 치사

1971년 4월 13일

나는 먼저, 지난날 이 유서 깊은 금산 벌판에서 구름처럼 밀려오는 침략자와 대결하여 장렬하게 옥쇄한 칠백의사들의 명복을 빌고, 그 위대한 조국 수호 정신의 향토 방위의 전통을 깊이 받들어 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 중략 .. 우리를 노리고 있는 침략자가 지척에 도사리고 있는 이 중차대한 판국에도 사사로운 당의 당리 당락에 사로잡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국방 문제에 대해서 경망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북괴의 김일성 일당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으며, 무슨 흥계를 꾸미고 있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인민은 모두 총을 쓸 줄 알고 총을 메고 있다. 온 북한 천지에는 철용성같은 방위 시설을 쌓아 올렸다. 중요한 산업 시설은 모두 요새화되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전쟁 준비를 완료했다. 북한은 남한 혁명의 기지이며, 남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원해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괴의 만행을 분쇄하고 이 땅에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고 국토를 통일할 수 있는 길은 단 한가지, 즉 국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 중략 .. 향토예비군이라 것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옛날의 의병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 중략 .. 앞으로 이 칠백의총은 역사의 흐름 속에 묻혀버릴 슬픈 유적지가 아니라, 우리들의 자신과 용기를 일깨워주는 향토 방위의 정신적 도장이 되고, 선열의 위업을 이어받는 거룩한 성역으로 정성들여 돌보고 가꾸어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이 공사의 준공을 위해 불철 주야로 노력한 관계관 여러분과 이 고장 주민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 능동 어린이회관

동아일보 1975년 10월 11일

능동어린이회관은 육여사의 뜻과 박대통령의 배려로 세워졌다. 박대통령내외의 정성어린 결정이었던 것이다.

.. 중략 ..

육영재단을 만들어 남산 어린이회관을 건립한 육여사는 어린이들에게 위험이 없는 고층건물 아닌 회관을 지어주려고 학자들과 저명인사들을 불러 새로운 회관건립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도 했었다.

**'높이는 지상 3층 이내 엘리베이터는 없도록 하되 건축양식은 반드시 한식으로 기와를 없으며, 회랑과 내부는 불편이 없도록 널찍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박대통령과 육여사의 공동구상이었다.**

.. 중략 ..

이때부터 육여사는 건립책임자이 회관관장 신명순씨를 수시로 불러 건립계획을 지시하고 마침내 기공계획까지 완료했다.

.. 중략 ..

개관식에서 박대통령은 시멘트로 된 서까래와 기둥을 가리키며 '저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 같으나'고 묻고, '나무로 땀입니다'는 대답을 듣고 박대통령은 빙그레 웃었다고 한다.

.. 중략 ..

박대통령은 공사현장에 여러 차례 나와 골조 내장공사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살폈고 신관장을 불러 공사의 진척 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한식韓式으로 지어진 이 회관 건물은 건축혁명'**이라고 만족스러워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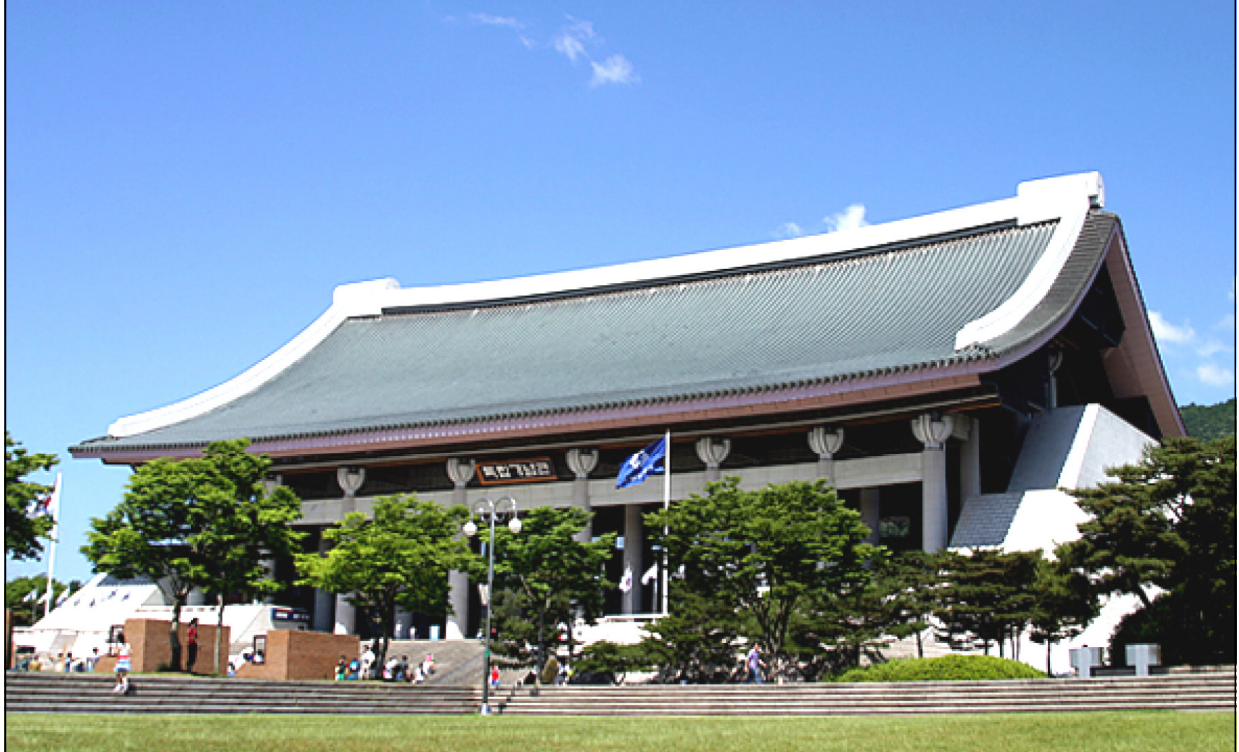
세종문화회관, 엄덕문

**분단체제 속 체제경쟁의 산물: 현대화된 전통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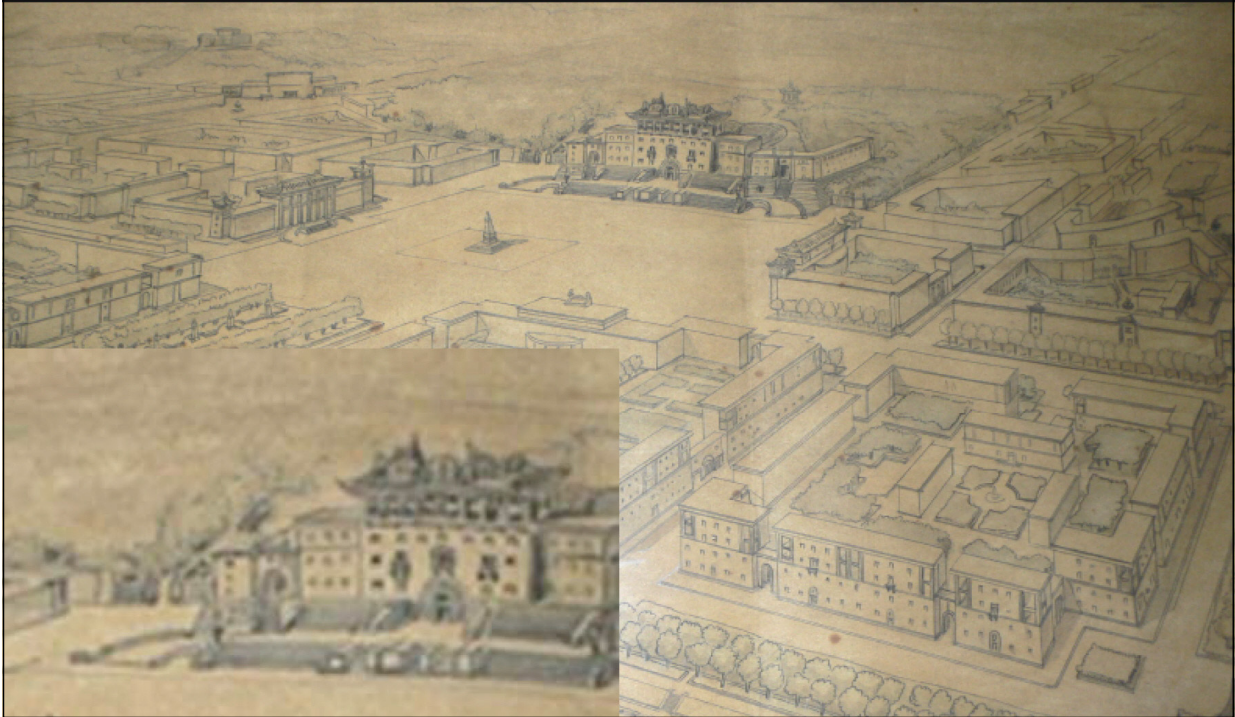
독립기념관, 김기웅

**반일감정과 전통건축**





### 3. 北의 콘크리트 전통건축



#### 1953년 내각결정 제125호: 평양시 복구 재건에 관하여

파괴된 평양시의 복구 재건에 있어서는 과거 일본제국주의 시대의 비문명적이며, 착취와 억압과 특권계급의 향리와 이기적 목적을 기본으로 하여 건설한 퇴폐적인 내용을 일소하고 근로 인민들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위한 현대적인 새 민주도시를 창조하여야 할 것.

**복구기본방향: 평양시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도시의 기본을 보존하면서, 주택, 산업 및 교통의 옹은 배치와 도시주민생활의 정상적 건강 조건을 보장하는 주택구역을 옹게 조직할 것이다.**

각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배치할 것/ 도심부의 김일성 광장을 중시할 것/ 문화 편의시설을 균등하게 배치할 것/ 도시교통을 보장할 것

**도시규모를 크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규모를 크게 하고 도시에 인구를 집중시키는 것은 18-19세기에 하던 낡은 자본주의적 방법입니다. 우리는 도시의 규모를 절대로 크게 하지 말고 **소도시 형태로 여러 곳에 건설**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시를 운영하는데도 편리하고 도시와 농촌을 골고루 발전시켜나가는 데도 좋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있는 개발, 국토의 균형발전

##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

묘향산 박물관 및 휴양소 일군들과 한 담화 / 1949년 10월 15일

**보현사** 묘향산에 있는 문화유산은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건축술과 훌륭한 예술적 기교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현사는 11세기 초의 우리나라 건축술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건축물입니다. 보현사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건물인 대웅전은 높지 않은 벽면과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경쾌하게 들려있는 합각지붕에 의하여 균형이 잘 잡혀있으며 거기에 류선형으로 배가 부르게 다듬어진 기둥이 조화되니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대웅전은 여러 가지 색조를 조화시켜 단청을 화려하게 하여 고상한 건축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대웅전의 단청은 수백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자기의 고유한 색채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것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단청술이 대단히 발전하였으며 색소의 질도 높았다는 것을 말하여줍니다.

대웅전의 문도 문살을 꽃무늬로 하여 보기 좋게 잘 짚으며 청기와도 윤기가 흐르게 잘 만들었습니다.

대웅전마당에 있는 8각13층탑과 만세루 앞에 있는 4각9층탑은 우리나라 중세기의 발전된 석조건축술을 보여주는 매우 훌륭한 건축물입니다. 이 탑들은 굳은 화강석을 마치 연한 나무를 다루듯이 섬세하게 다듬어 쌓기도 잘하고 장식도 잘하였습니다.

## 민족건축형식과 사회주의

### 북한식 사회주의 건축양식

- \_ 1954년 3월 26일 전국 건축가 및 건설기술자 대회 - 민족적 건축 예술
- \_ 전후 복구기에 새로운 건축예술을 창조하는데 있어.. 민족적 특성을 현대적 미감에 맞도록 해야한다.

### 건축설계=민족형식 + 사회주의적 내용

- \_ 민족형식=자기 민족이 좋아하고 구미에 맞는 건축형식
- \_ 사회주의적 내용=근로 인민의 요구에 적합할 것

**온돌** 반당반혁명중파분자들과 사대주의, 교조주의자들은 고유한 조선식난방형식, 조선식 생활양식을 외면하고 남의 나라 풍내를 내려고 책동하였다. 어떤 자들은 조선식생활양식을 주장하는 사람을 <온돌론자>라고 하면서 근시안적 견해니 뭐니 하면서 비방하여 나섰으며, 반당반혁명중파분자들과 사대주의 교조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의 난방형식을 받아들일 것을 제창하고 나섰다.

### 1955년 12월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는 조선혁명이며 따라서 모든 사상사업은 반드시 조선혁명의 리익에 복종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 사상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조주의와 형식주의의 표현들과 그 원인 당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반도들과 당면하게 사상부분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한다.

### 1956년 1월 30일 전국 건축가 및 건설자 회의에서

건축, 건설분야에서 발로되고 있는 사대주의, 교조주의 표현형태들과 그 해독성을 폭로 비판하시고, 건축, 건설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구체적 방도를 제시.

### 1958년 1월 평양시 건설부문지도 일군 협의회

수도건설자들은 건설부문에서 반당중파분자들의 책동을 폭로분쇄하고,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불사르면서 설계의 표준화와 규격화, 부재생산의 공업화, 시공의 기계화를 널리 받아들여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 1964년, 조선건축가동맹 제2차 대회

건설분야에서 교조주의,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확립함으로써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건설하기 위한 당의 방침을 관철한다.



개성학생소년궁전 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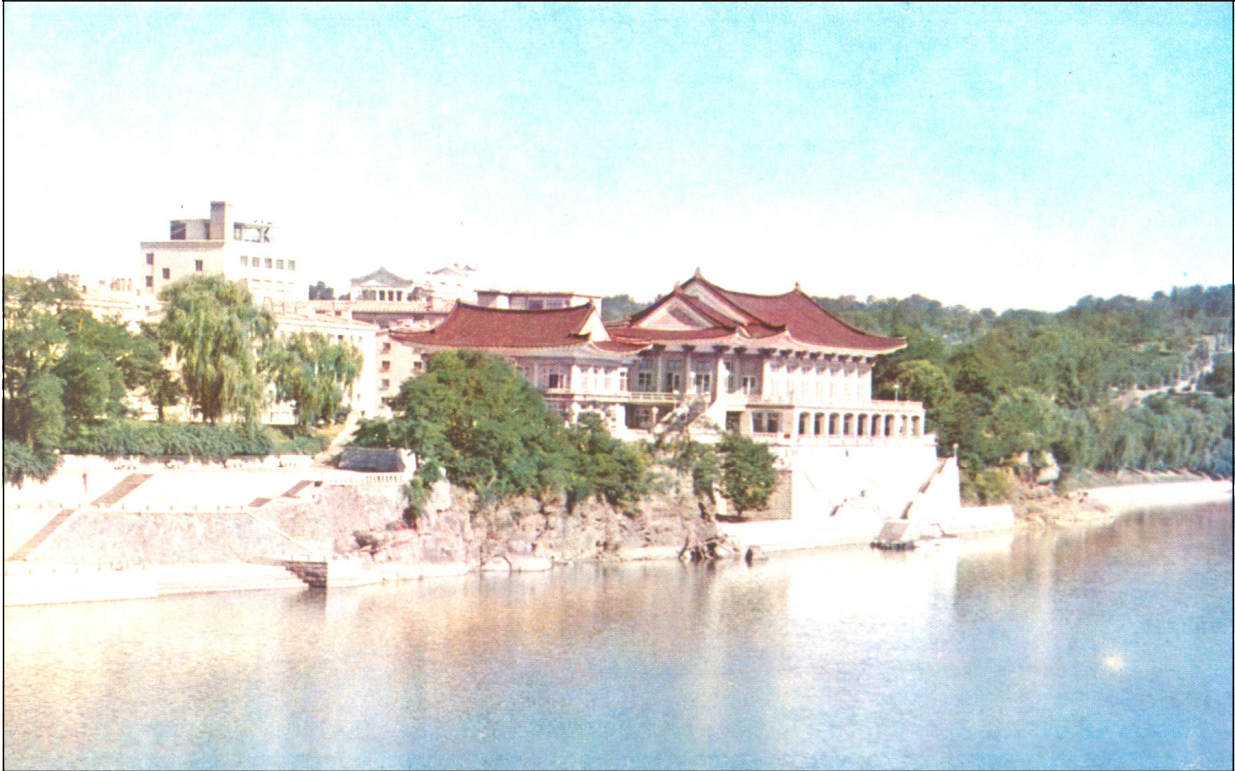


평양대극장 1960





## 옥류관 1960



###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_과학교육및 문학예술부문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0년 2월 17일

**고적들의 복구, 보존** 고적들도 복구하여 보존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조국해방전쟁때에 폭격에 마사졌거나 이미 없어진 고적들을 다 복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부 고적들을 복구하려는 중요한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난날 우리나라의 건축술을 볼수 있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상루나 보현사, 석왕사, 신계사 같은 이름난 것들과 역사적시기에 따라 독특한 고적들을 몇개씩 복구하여 보존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은 복구하여 **박물관으로 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복고주의적 경향 반대** 우리는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 데서 허무주의를 반대하는 것과 함께 지난날의 것을 **던져놓고 다 그대로 살리려는 복고주의적 경향도 철저히 반대하여야 합니다.** 지난날 나쁜 놈들은 우리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데서 형식도 옛날 것을 그대로 살리고 내용도 옛날 것을 그대로 살려야 한다고 하면서 복고주의적으로 나갈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복고주의적 경향에 대하여 여러 차례 비판하였습니다. 그들은 시조와 판소리를 제일 좋다고 하였는데 시조나 판소리 같은 것은 옛날 향반들의 구미에나 맞지 오늘 우리 시대의 미감에는 맞지 않습니다. 시조는 긴장한 맛이 없고 틀으면서 낮잠이나 자기 좋은 느리고 한가로운 음조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고 트랙도로를 밟을 갈며 모두다 긴장하고 활기있게 생활하는 오늘의 현실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식에는 설사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다고 하여도 격에 맞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민족적 노래형식이라고 하여 판소리 같은 것을 그대로 살릴 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이 부르기 쉽고 알아듣기 쉽게, 현시대의 미감에 맞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민족적 형식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문학예술의 민족적 형식도 시대적 요구와 계급적 요구에 맞게 계승 발전되어야 합니다.**







인민대학습당 1982



정릉사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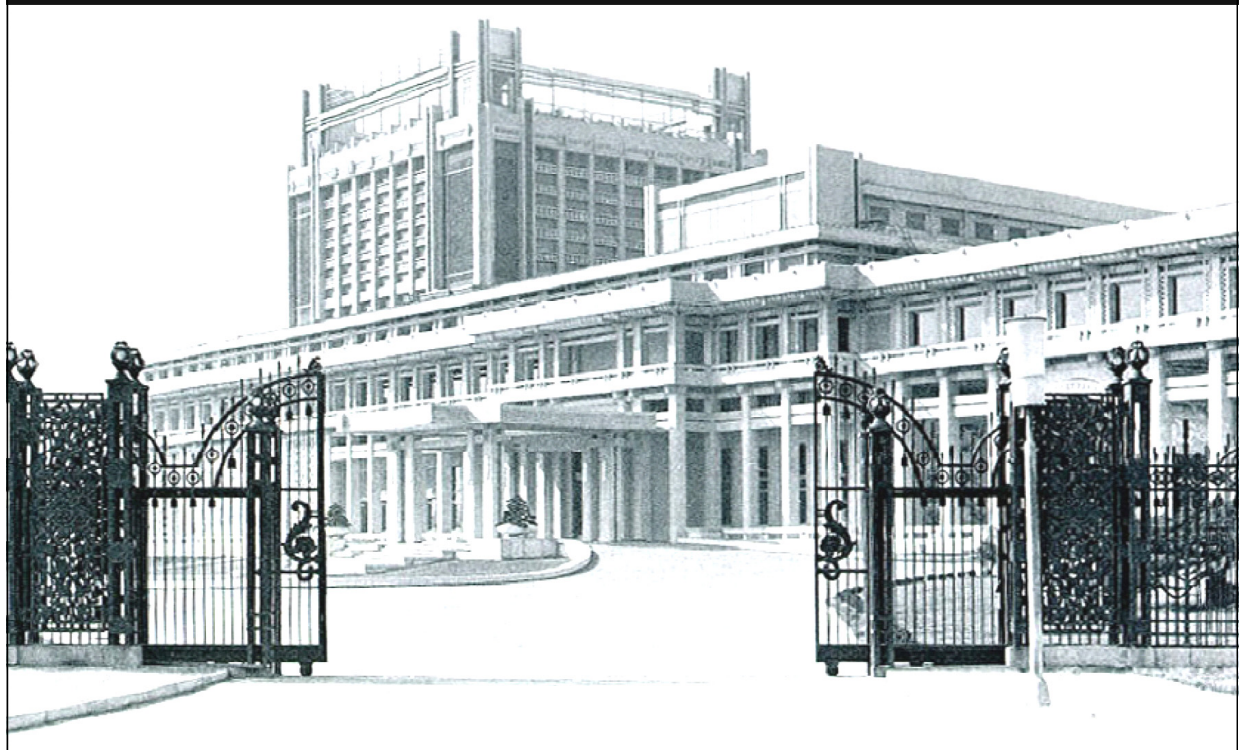
## 민족건축양식의 진화

- 평양의 국제도시화\_개방화에 대한 대비
- 전통건축의 현대적 해석: 가구식 구법



4.25文化會館

## 만수대예술극장





## 만수대의사당





## 남과 북의 전통건축의 현대화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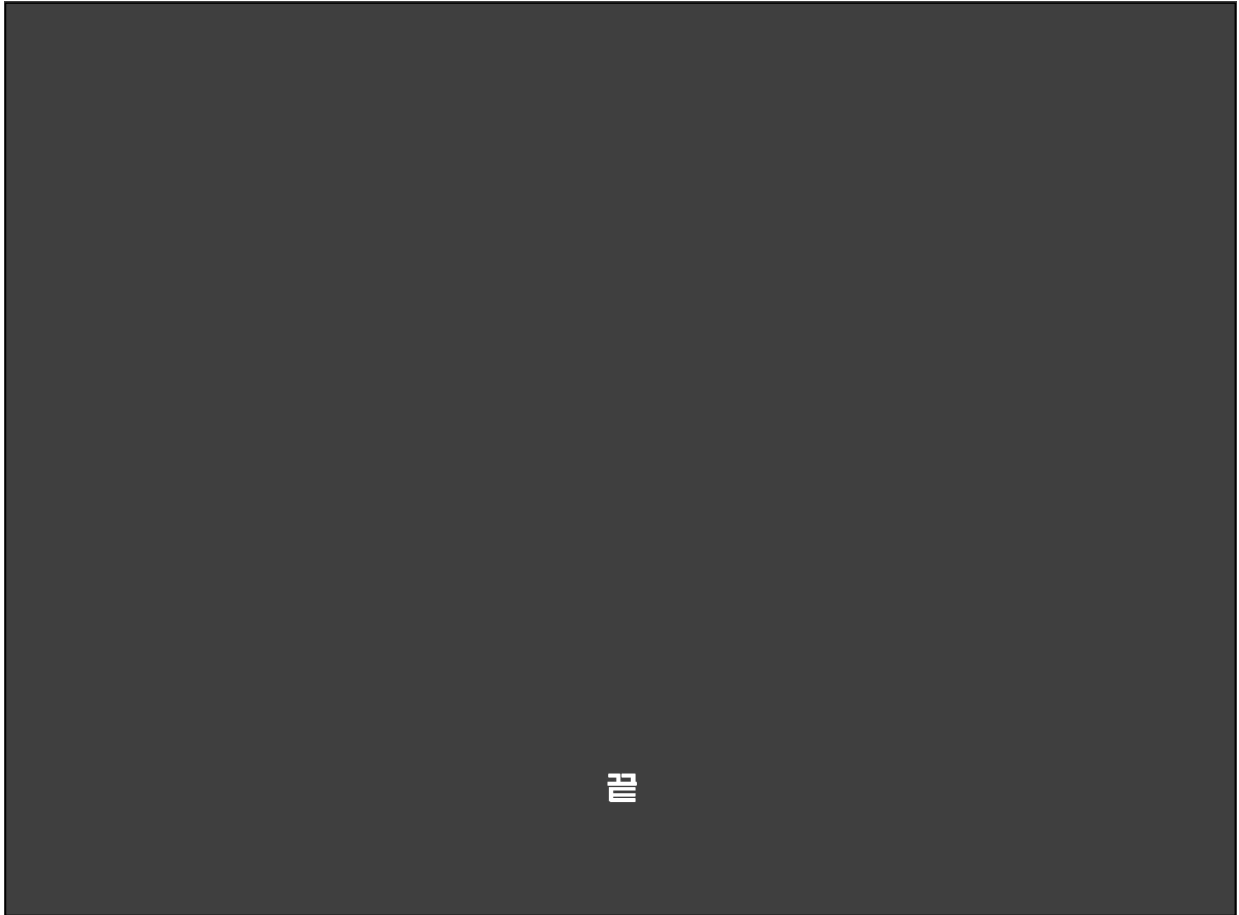
4.25문화회관 vs. 세종문화회관  
1974~1975년 준공 vs. 1974~1978년 준공  
주공연장 6,000석 vs. 주공연장 5,000석(4,200석)



## 신계사 vs. 영통사







결과

주제발표

# 4

## 북한 건축계의 전통 인식 : 담론과 실험

박동민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강사



## 북한 건축계의 전통 인식 : 담론과 실험

박동민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강사

### 1. 서론

과거의 전통은 현재적 가치에 따라서 평가되어 왔다. 따라서 때로는 전통이 진보의 걸림돌로 인식되었고, 때로는 체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다. 오늘 발표는 북한 건축계에서 전통에 관한 인식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형성되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전통과 관련된 담론의 흐름과 주요 건축 작품을 통해서 알아본다. 이 발표는 북한에서의 전통건축에 관한 이해는 현대성의 원리에 의해서 수용되었고, 따라서 종합적 이해에 바탕을 두기보다는 선별적 과정에 의해서 형성되었으며, 그 결과 전형성을 가지는 전통의 이해가 구축되어 왔음을 주장한다.

### 2. 북한 전통 담론의 이론적 기원

북한의 모든 사회, 문화 분야가 그러하듯, 북한에서 전통을 이해하는 틀은 소련에서 기원했다. 구체적으로, 맑스-레닌리즘의 역사인식과 이 후 1930년대 소련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북한에서의 전통건축과 관련한 담론 형성에 이론적 틀을 제공했다. 북한이 전통의 이해와 관련해서 소련에서 물려받은 특징으로 현대성과 선별성, 그리고 전형성을 들 수 있다.

우선, 전통이해의 현대성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기인한바가 크다. 소련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예술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혁명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예술보다는 인민의 현실의 상황과 역사적 특징에 맞는 예술의 형태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원칙을 구체화한 인물은 스탈린이다. 1925년 스탈린은 소련 내 자치국화국의 민족문화에 대해 말하며,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전 인류적 문화는 “내용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적이며 형식에 있어서 민족적인 문화”임을 밝혔다. 즉, 스탈린은 사회주의 국가 소련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문화와 기존의 민족문화는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가 가져다준 문화는 민족문화에 새로운 내용을 주고, 민족문화는 사회주의 문화에 형식을 주는 것임을 밝혔다. 전통 담론의 측면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각 민족별로 자신들의 역사적, 문화적 특징을 발견하고, 이를 당대의 예술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예술에서 전통에 관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되었다. 이는 동시에 과거는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현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되고 다시 현재에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했다.

이는 건축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는데, 과거의 건축유산은 현대의 건축에 반영되어야 하고, 동시에 현재 건축계의 화두는 과거 전통 건축물의 평가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전통 해석의 현대성은 사회주의 국가의 전통 해석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인 전통의 선별적 이해를 불러왔다. 즉, 모든 과거의 전통이 계승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현재에 유용한 것을 선별해서 계승해야 했다. 맑스-레닌이즘의 역사관은 이 선별과정에서 이론적 틀을 제공했다. 맑스-레닌이즘에 따르면, 역사에는 항상 진보적 요소와 반동적 요소가 있는데, 현재의 예술은 이중 진보적 요소만을 찾아서 발전시켜야 했다. 현재의 사용을 위해 특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통의 다양한 측면중 특정한 요소만이 취사선택된다는 점은 전통이 종합적이며 다각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 중 특정한 측면은 강조되고, 그렇지 못한 면이 차츰 줄어들어서 결국 전통이 하나의 전형화 된 형태로 고착화됨을 의미한다.

소련에서의 전통에 관한 이해는 맑스-레닌이즘에 기인하거나, 아니면 이에 기반하여 최초로 실천적 강령을 만든 스탈린에서 기인했다. 이러한 사회주의의 제창자들이 만든 생각들은 북한으로 건너가 김일성과 그 후계자들의 이름으로 그대로 되풀이 된다. 그리고 북한의 엘리트들은 소련의 원본과 김일성이 만든 북한식 이론에 기반을 해서 전통에 관한 담론을 형성했고, 이는 다시 실제 건축 프로젝트에 반영했다.

### 3. 북한 전통 담론의 형성, 1945-1967

북한 건축계에서 초기의 중요한 담론 형성의 장으로는 『건축과 건설』과 『문화유산』 등의 잡지와 일간지인 『로동신문』 등이 있다. 1950년대 중반에 쓰여진 글을 통해, 북한의 건축가와 건축사가들이 이미 맑스-레닌이즘에 입각한 전통 인식의 틀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 강좌장을 역임했던 미술학자 리여성은 『조선 건축 미술의 연구』(1956)에서 과거 봉건 시대에 만들어진 전통 건축물에는 진보적인 요소와 반동적인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 진보적이라 판단되는 요소를 선별하고 현재의 건축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과거의 문화유산은 봉건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생산에는 언제나 반동적 시대적 상황이 영향이 주는데, 따라서 과거의 유산에는 계승하지 않아야 하는 요소들도 많다고 봤다. 리여성은 구체적으로 전통 건축에서 “봉건적, 히에라르키적인 틀란들, 비건축력학적인 결구와 용재들, 조잡한 시공들과 저급한 채장들”은 물려받아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계승해야 할 전통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인민에게 친근감을 주고, 애국주의를 고무시킬 수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에 공헌할 인민성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를 가져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전통 예술의 평가에서 완전히 만족스러운 예는 없기 때문에, 그 작품이 생겨난 시대적 제약을 고려하면서 진보적 요소가 있는 작품을 찾아내야 함을 주장했다.

리여성의 글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을 보는 현재적 시점과 그 선별적 이용은 1950년대 그리고 60년대까지 거의 대부분의 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주로 비판을 받는 것은, 전통건축에 사용된 공포나 단청 등 장식과 관련한 요소였다. 예를 들어, 평양시 인민 위원회 건축 참의로



일하던 남상진은 전통 건축물의 세부 장식은 조선의 민족적 특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연적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건축에서 볼 수 있는 공포, 처마, 혹은 세부 문양 등을 현 시기에 그대로 따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통 건축의 목구조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조선 건축가 동맹 서기장이었던 박항식은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은 재료적으로는 목재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며, 구조적으로는 트러스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 점이 단점임을 지적했다. 그 역시 전통 건축의 장식을 비판했는데, 구체적으로 조선 후기의 “불건전한” 수법을 배척해야 하며, 구조미가 돋보이는 이전 시기의 건축물에서 배워야 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당대의 건축가들이 계승해야 할 것은 장식과 같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전통 건축을 형성하는 본질적인 민족적 특성을 발견하여 현대화하는 것임을 주장했다.

전통 건축에 관한 관심이 현실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담론의 형성은 실제 건축 설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평양 재건 초기의 대표적 건물인 평양의 종합청사(1955)와 평양역사(1958)는 현대 건축에서 전통의 적용이 요구되었으나, 그 적용에서는 아직 정형화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김일성 광장 남쪽에 건설된 종합청사 2호 건물은 건축가 한덕건이 설계했는데, 이 건물에서는 주로 장식에서 전통 건축의 영향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건물에 사용된 벽기둥의 주두 주변의 창방과 낙양에 해당하는 부재는 단청 등 조선 전통의 문양에서 가져왔다. 흥미로운 점은, 주두의 중심에는 낫과 망치가 그려져 있고, 그 주위를 이삭 더미가 감싸고 있으며, 위로는 공산주의의 상징인 별 모양이 그려져 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전통적 장식이 현재 정치 이데올로기인 공산주의의 상징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당시 북한 건축가들이 전통을 대하는 자세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유사한 예로 1958년 완공된 평양역사를 들 수 있다. 이 건물은 석조로 된 서양 고전건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최상부의 시계탑에는 전통적 목구조 형태의 지붕을 의장 요소로 사용했다. 1954년의 계획안을 보면, 지붕 꼭대기에 공산주의의 상징인 오각형의 별이 높이 솟아있는데, 전통적 요소가 사회주의의 상징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되었다. 이 평양역사의 전통 지붕에 대해, 리여성은 평양역사에 전통적 건축 양식이 충분히 적용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는데, 한편 오익근은 이 건물의 전통 지붕이 현대적 건축과 전혀 어울리지 않으며, 재료의 낭비라며 비난했다. 같은 건물을 평가하는 두 개의 서로 상반된 관점은 1950년대 중반, 북한에서의 전통에 관한 이해가 아직 하나로 자리 잡지는 않은 상태임을 보여준다.

1956년 8월 종파건진 이후 북한은 그동안의 소련으로 부터의 영향에서 벗어나 조선의 특수성을 찾고 이를 현대 건축에 적용시키는 일이었다. 따라서,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는 모든 문화 분야에서 전통 담론이 폭발하는 시기다. 건축분야에서도 맑스-레닌이즘에 입각한 전통의 선별적 이해의 기법이 더욱 세련되어 지고, 구체적으로 현실에의 적용까지 연결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석굴암은 해방 이후부터 꾸준히 가장 우수한 전통 건축물로 다루어졌는데, 한상진은 1962년 『로동신문』에서 석굴암의 보살입상의 예를 들며, 이 조각은 당시 종교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신라 인민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만든 것임을 강조했다. 즉, 그 예술품을 만들어낸 문화적 컨텍스트와 그 생산물을 분리시켰다. 같은 구조물에 대해 장희웅은 1963년 『로동신문』에서 구체적으로 석굴암의 구조에 집중하여, 당시 북한 건축계의 화두였던 조립식 건축과 유사하며, 당시

북한에 건설되던 아동 궁전과 교예 극장의 구조물에 석굴암의 구조가 교훈을 줌을 주장했다. 1967년 『로동신문』에 쓴 김하명의 글에는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즉, 과거로부터의 전통은 맑스-레닌주의에 의해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한 긍정적인 것만을 계승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대성의 원칙, 즉 전통에서 사회주의 원칙에 적당한 요소만을 찾아서 계승해야 함을 주장했다.

북한에서의 전통에 관한 관심은 현실에의 적용을 가정한 것이었고, 따라서 이 시기에는 담론의 형성뿐만 아니라 실제 건축 사업에서도 전통을 현대에 조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특히 중요한 점은, 평양 대극장과 옥류관 등의 건설을 거치며 이 시기에 현대 조선식 건축이라 불리는 전통적 모티브를 차용한 현대건축의 전형적 모습이 완성되었다는 점이다. 평양 대극장의 건설은 몇 차례의 조형적인 시행착오를 거치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평양 대극장의 경험을 통해 맞배지붕과 박공면을 통한 진입은 북한의 현대 조선식 건축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고, 맞배지붕과 지붕면을 통한 진입이 전형화 된다. 같은 시기 지어진 개성시 아동 회관에서 같은 변화를 읽을 수 있는데, 이는 전통건축과 관련한 담론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편 구조적으로 필수적이지 않았던 공포는 비교적 덜 중요한 요소로 취급된다. 또한, 기와의 색상이 전통적인 청색이 아닌 적색이 선택되었는데, 이는 기와의 색이 전통에서 필수적으로 물려받아야 할 요소는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의 현대 조선식 건축에서도 기와의 색상에는 비교적 자유도가 부여된다. 이처럼 1960년을 즈음한 시기는 북한 건축계에서 전통과 관련한 담론이 성숙하였으며, 동시에 실제 현대 건축물의 설계에서도 전형화 된 사례가 등장한다.

#### 4. 70년대 이후의 변화

전통 건축의 이해와 관련해 1970년대에서 1980년대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이 시기에 북한의 지식세계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건축 관련 출판물의 간행이 줄었다는 점이다. 현대 조선식 건축에서도 이전에 완성된 전형된 형태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이 시기를 거치며, 주체사상이 맑스-레닌리즘을 대체했다는 점이다. 1967년 갑산파의 숙청 후, 북한에는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가 완성된다. 이 후, 70년대부터 주체사상은 그 이론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고, 그 이론적 바탕이 된 맑스-레닌리즘을 대체한다. 주체사상은 맑스-레닌리즘이 지적한 계급간의 갈등이 아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역사 서술의 틀로 삼고 있으며, 그 인민들은 당과 수령의 영도를 통해서만 올바른 역사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역사의 해석에서 계급의 갈등이 아닌 김일성이 그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전미영, 2006). 이 시기를 거치며 북한에서 ‘전통’이란 단어대신 흔히 사용되는 ‘민족’의 개념도 변하게 된다. 맑스-레닌리즘에서 민족이 근대적 사회 형성기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데 반해, 1980년대에 이르면 ‘핏줄’이 민족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1987년 창간된 『조선건축』은 창간 초기부터 “민족건축사”와 관련된 독립된 칼럼을 만들고, 북한 건축계에서 전통 담론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 시기에도, 1950년대와 1960년대 형성된 맑스-레닌리즘에 기반한 북한 전통건축에 관한 이해의 틀, 즉 현대성과 선별성, 전형성의 특징은

그대로 발견된다. 하지만, 이 시기는 전통 담론이 형성되던 1950년대에서 60년대와 비교해서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 번째는, 전통 담론의 이론적 배경에서 맑스-레닌이즘을 비롯한 외부의 영향이 단절되고, 언제나 김일성과 김정일의 발언에서 그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전통의 복원을 복고주의나 부르주아민족주의로 보는 과거의 시선은 크게 약해졌다는 점이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전통에 관한 관심의 증가는 당시 국제 정세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80년대 말, 공산세계의 붕괴라는 세계적 상황에서 북한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사회주의의 보편성보다는 북한만의 민족적 특수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차별된 조선만의 전통을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전통의 복원작업을 시작한다. 이를테면 1988년에 추석이, 1989년에 설날과 단오가 휴일로 새롭게 지정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건축계에서의 전통 재발견을 위한 노력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양대극장은 2009년 대규모 수리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내부에 전통적인 장식이 추가되고, 지붕에는 기존의 붉은 기와를 청기와로 교체한다. 또한 이를 “우리 선조들이 왕궁건물에만 청기와를 쓰던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소개했는데, 이러한 봉건시대와 관련된 건축의 긍정적 묘사는 대극장이 처음 만들어진 1960년에는 보기 어려운 서술이다.

또한, 최근 북한에서의 전통과 관련한 글들을 보면, 점차 전형화된 이해가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전통 건축에는 황금비(1:1618)와 금강비(1:√2), 정수비들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말한다든지, 색상에서 부드럽고 은근한 색을 선호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그 대표적 예다. 또한, 이러한 전형화된 과거의 건축을 재현하는 것 역시 긍정적으로 인식되어간다. 때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가상의 전형화된 과거의 전통이 현재의 건축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기도 했다. 따라서, 점차 과거의 전통을 발견하는데서 나아가 어떻게 현대의 건축에서 전통적 느낌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담론도 만들어진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현대에 맞는 전통이 선별적으로 채택되었다면, 이 시기에는 이렇게 전형화된 전통을 현대에 재현하기 위해 노력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 5. 맺음말

이 발표에서는 북한의 전통건축에 관한 이해에 관한 중요한 특징으로 현대성, 선별성, 전형성을 들었다. 또한, 이러한 특징은 맑스-레닌이즘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는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의 담론의 장과 실제 건축 프로젝트를 거치며 만들어진 것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상황의 필요에 의해 전통에 관한 관심이 커져갔고, 결국 과거의 전통에 관한 좀 더 적극적 이용의 경향이 커져갔음을 보여주었다.

전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해석을 통해 이해되는 것이며,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이해가 변한다는 사실은 북한이나 사회주의 국가만이 가진 특성이 아니라, 전통이 가진 근본적 속성이다. 이러한 전통에 관한 속성을 이해하고, 또 북한의 시대적 흐름을 함께 고려할 때 북한의 전통 건축에 관한 좀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 북한 건축계의 전통 인식: 담론과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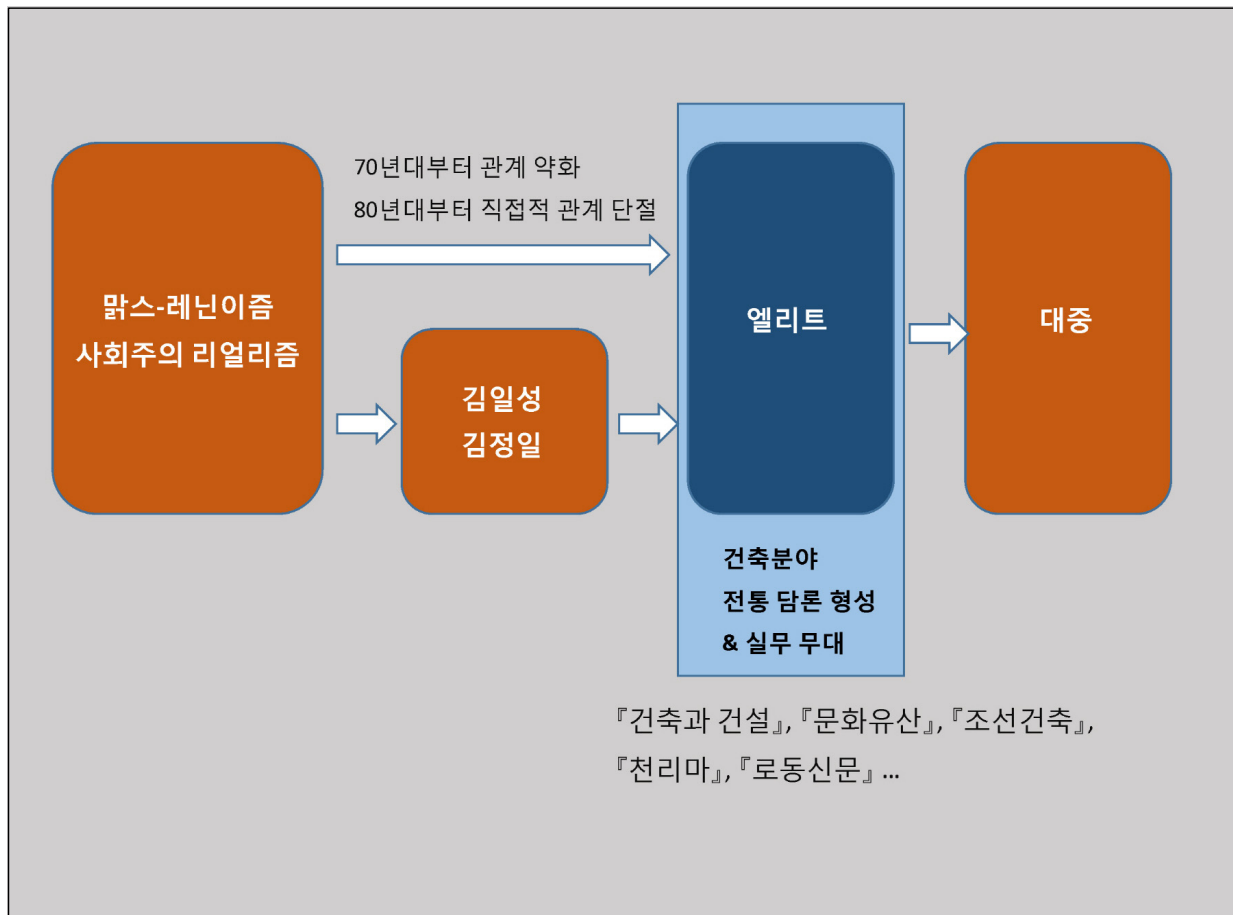
박동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강사

1. 북한 전통 담론의 이론적 기원
2. 북한 전통 담론의 형성, 1945-1967
3. 70년대 이후의 변화

## 1. 북한 전통 담론의 이론적 기원

“그내용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적이며 형식에 있어서 민족적인 문화—  
이러한것이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전인류적인 문화이다.  
프로레타리아문화는 민족문화를 폐기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에다 내용을  
주는것이다. 그와 반대로 민족문화는 프로레타리아문화를 폐기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에다 형식을 주는것이다.”

스탈린, “동방민족대학의 정치적 제과업에 관하여,” 1925년



## 2. 북한 전통 담론의 형성, 1945-1967



“일찌기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께서는 조선 로동당 제5차 전원 회의에서 이 과업에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선조들이 써 놓은 력사나 지리나 기타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고귀한 유산들을 맑스-레닌주의적 견지로 연구 분석하고 그를 섭취하여 발전시키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귀한 유산들을 집어치우는 아주 용서 못한 엄중한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우리는 자기의 고귀한 과학 문화의 유산을 옳게 섭취하여 그를 발전시키는 기초 위에서만이 타국의 선진 과학 문화들을 급히 또는 옳게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까.>>  
... 자국의 문화 유산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옳게 분석, 평가하고 또 그것을 옳게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그 기본 과업이라는 것과 또 이렇게 하여야만이 외국의 선진 문화를 급속히 또는 옳바로 섭취할 수 있는 기초로 된다는 것을 교시한 것이다.”

리여성, 조선 건축 미술의 연구, 1956

“맑스주의자는 항상 세계를 해석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조하는데로 전진하고 있다. 여하히 빛나는 미술 유산일지라도 분석의 도마 위에서 섭취의 위장 속으로 들어가야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다.

...

사회주의적인 내용과 민족적인 형식”이란 스탈린의 명제는 미술 유산 계승 발전의 유일한 실천적 로선으로 된다.”

리여성, 조선 건축 미술의 연구, 1956

“그러면 사회주의의 건설을 지향하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민족 미술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데는 어떠한 기준이 필요한 것인가?

미술 유산은 여러 세기에 성생 축적된 미술의 퇴적물이며 정리되고 분석되고 정화된 그것이 물론 아니다. 그 속에는 생기있는 인민적 요소도 풍부하거나와 부패한 반인민적인 요소도 또한 많이 포함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술 유산을 금싸라크같이 아낀다 하여서 그 가운데 있는 반인민적 독소까지도 섭취한다면 이는 도리어 위험천만한 일이다.”

리여성, 조선 건축 미술의 연구, 1956

“미술 유산(다른 모든 문화 유산과 같이)의 계승은 민족 미술의 발전에 그 목적이 있는만큼 그것의 발전에 공헌할 수 없는 요소들에 눈이 현혹하여져서는 안된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례하면 건축에 있어서 일부 봉건적, 히에라르키적인 별란들, 비건축력학적인 결구와 용재들, 조잡한 시공들과 저급한 채장들, ... 따라서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적지 않게 있다.”

리여성, 조선 건축 미술의 연구, 1956

“첫째, 우리 미술 유산 가운데에 생기있고 창의적이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술로써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미술

둘째, 조선 인민의 “언어, 령토, 경제 생활과 문화의 공통성 가운데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의 공통성”을 표현한 것으로서 조선 인민이 다 동감과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미술.

셋째, 우리의 모든 사업에 우리 인민을 애국주의로 고무하는 미술

넷째,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새 시대에 적응한 새 미술의 창조에 공헌할 수 있는 인민성적인 미술.

다섯째, 소련 및 중국과 제 형제적 인민 민주주의 국가 인민들을 비롯하여 전 세계 인민들이 우리 민족 미술을 정당히 이해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미술.”

리여성, 조선 건축 미술의 연구, 1956

“이러한 미술을 우리는 요구하고 탐구한다. 그러므로 이 요구에 상반되는 미술은 비록 금옥과 금수속에 싸여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으며 계승하지 않을 것이다. 민족 문화 유산의 맹목적인 계승은 부르조아 민족주의를 따르는 파씨스트적 반동의 길이며 프로레타리아트적 국제 문화와 기본적으로 상반되는 길이며 인종론적 배타주의에 떨어져 진실한 민족 문화의 발전을 방해 저지하는 극히 유해한 길이기 때문이다.”

리여성, 조선 건축 미술의 연구, 1956



“그러나 우리의 미술 유산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때에는 그것이 거의 과거 봉건 사회의 산물이었던만큼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은 극히 희소하다. ... 레닌은 톨스또이의 제 모순을 그 시대의 사회적 분석으로써 이해하였다. 즉 그는 톨스또이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시대적 제약성을 고려하면서 그의 업적을 평가하며 그에게 섭취할 것이 크다는 것을 로씨야 예술인들에게 교시하였다. ... 시대적 제약성을 고려함이 없이는 예술 유산의 옳은 분석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정밀한 섭취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봉건적이라 하여 또는 종교적이라 하여 다 버리기로 한다면 우리의 예술 유산 가운데에 과연 몇가지나 남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레닌적 방법에 의거함으로써만 우리 예술 유산 가운데서 많은 것을 옳게 고집어 낼 수 있으며 그것으로써 우리 인민의 예술을 더욱 풍부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리여성, 조선 건축 미술의 연구, 1956

“우리가 풍부히 소유하고 있는 문화 유산을 옳게 계승 발전시키려고 할 때에 거기에 엄정한 취사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우리의 문화 유산중에서 어떤 요소를 계승 발전시킬 것인가? 그것은 우리나라 인민 민주주의 국가 사회 제도와 혁명의 리익과 광범한 인민 생활의 요구에 충실히 합치되는 것이라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당과 정부의 로선 및 정책을 실현함에 리로운 것, 전체 인민의 리익에 합치되는 모든 요소를 발견하여 이를 계승 섭취하는 데 있다.”

김창일, 로동신문, 1956

“우리가 건축 유산의 민족적 형식을 창조적으로 도입함에 있어서 경계하여야 할 것은 모든 유산 계승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교조주의적 모방과 허무주의적 비속화를 반대하는 투쟁이다. 고전을 도입 적용한다 하여 고전을 희롱함으로써 고전을 모독하며 비속화하는 형식주의적 경향과 투쟁해야 하며 이와는 반대로 사회 제도와 건축 자재가 이미 과거와 판이한 환경에 있다고하여 우리나라의 건축유산의 진보적이며 인민적 요소들을 무시하고 외국의 것만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교조주의와 허무주의적 경향들과 또한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박황식, 로동신문, 1956

“이러한 편향들을 반대하면서 우리는 항상 건축 유산에서의 진보적이며 인민적이며 민족적인 특성과 요소들을 맑스-레닌주의적 립장에서 비판적으로 계승 섭취하여야 하며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 계단에서 건축가들 앞에 나서는 과업은 건축을 설계함에 있어서 민족적 형식에다 사회주의적 내용을 부여함으로써 현대적인 참신한 사회주의적 민족 건축 양식을 창설하는 데 있다.”

박황식, 로동신문, 1956

“민족적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서는 기후적 조건과 지리적 조건 그리고 생활 풍습 및 감정과 현재 도달된 기술 수준, 건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요인들 가운데에는 다른 민족들과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요인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 형식은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것들만으로써 이루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민족적 특성이라는 말은 그 나라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를 의미하는 것만큼 민족적 특성은 민족적 성격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민족적 형식이 민족적 특성으로써만 형성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세부 장식을 하는 데 있어서 현구조 내용과는 결부되지도 않는 과거 우리 나라 건축물에서 특이하게 사용된 세부 장식을 무리하게 모방하려는 경향들이 발로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과거 우리 나라에서 적용된 세부 장식 수'법은 많은 경우에 우연하게 발생한 것이며 따라서 그가 앞으로 반드시 계속 존속하여야 할 과학적 근거는 없을 것이다.”

남상진, 건축과 건설, 1957년

“이제 건축 재료학적 면에서 본다면 과거 우리 나라 건축은 거의 전부가 목재로써 건설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목조 건축으로서의 건축 구조학적 발전은 과거 봉건 제도하에서의 비균중적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일정한 한도에서 저지되었으며 이러한 건축 건설에서의 사회적 제한성은 또한 건재학적 발전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그 구체적 실례로서 구조학적 면에서 지붕 구주에 대한 <<트라스>>구조와 건재학적 면에서의 목재 이외의 제반 건재 생산과 제재 공업에 대한 소극적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박황식, 문화유산, 1957년



“순 목조 건축에서 발전하여 온 복잡하고 봉건적인 제반 요소들은 이를 그대로 현대적 건축에 도입할 수는 없으며 특히 리조 후반기에 성행한 건축 장식 미술에서의 불건전한 수'법들은 응당 배격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현실성에 비추어 사회주의 건설자로서의 역센 성품과 드높은 기상을 표시하기 위하여는 삼국 시기 유산들의 웅대한 수'법들에서 배워야 하며 건설의 공업화를 위한 현실적 조건에서는 고려 말기부터 리조 시기에 걸쳐 광범하게 사용된 <<포식>>건축의 소박한 구조적 해결과 웅장한 표현 원칙들이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식적 해결 면에서는 고려 시기의 건축에서와 같이 어디까지나 구조에 충실하면서 지어진 조건에서 이를 보다 더 아름답고 단정하게 처리하는 우수한 수'법들과 신라 통일 시기의 화려하고 찬란한 장식 무늬들이 연구 섭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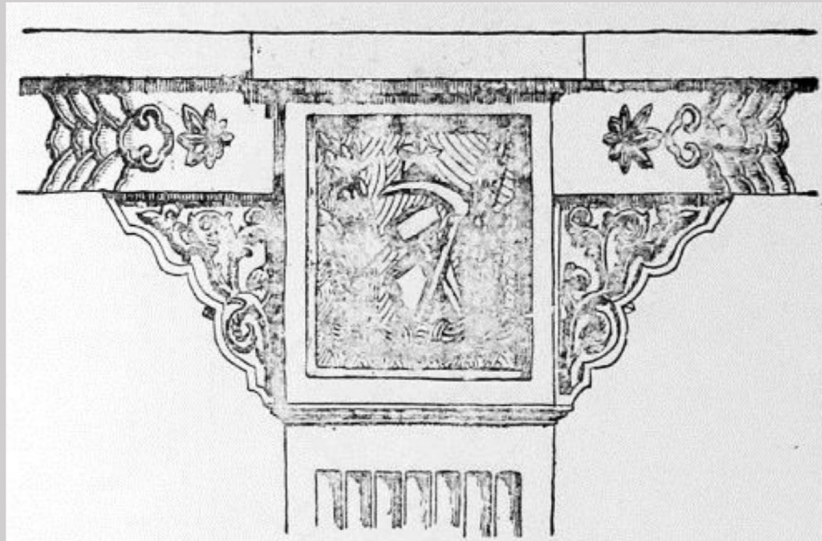
박황식, 문화유산, 1957년

“민족적 형식의 도입 문제에 대하여도 우리는 항상 부차적인 것들 (레컨대 장식 무늬 등) 에서만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과거 민족 건축을 형성하였던 본질적인 민족적 특성들을 옳게 분석 적발하여 이를 현대화하도록 노력함이 가장 긴요한 과업일 것이다.”

박황식, 문화유산, 195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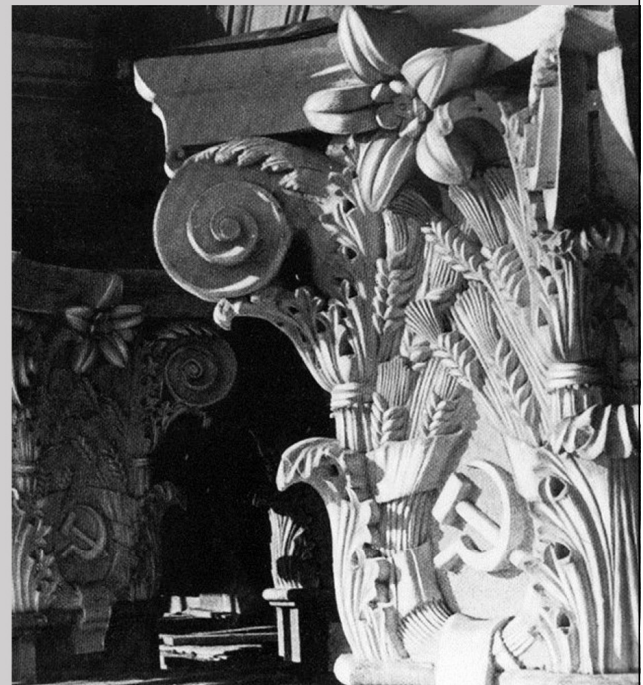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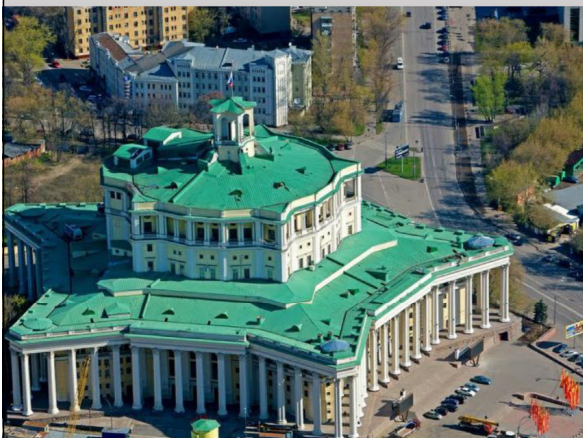
소련의 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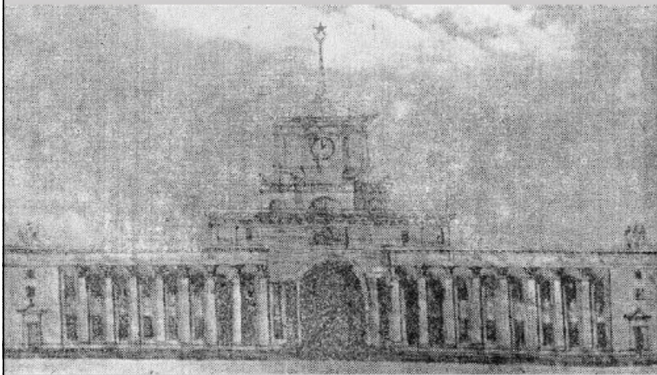
전통 단청의 예시



종합청사 제2호, 1955년



Red Army Theatre, Moscow  
1939-40



평양철도 역사, 1954년 계획안



평양철도 역사, 1958년 완공

“선진 소련의 각 가맹 공화국들에서도 자기 민족의 고유한 특성들을 건축에 도입하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 또 중국에서도 민족적 건축 양식을 도입하기에 그 얼마나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 평양은 우리 선조들의 역사적 전통이 깃들어 있는 도시이며 공화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신축되는 평양 역사는 이와 같은 환경과 조건에 잘 부합되지 못하였다고 본다.”

리여성, 건축과 건설, 1957

“이 역사의 지붕에는 현대적 건축에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으며 이 건물의 기능과는 관련도 없는 굉장한 탑이 있는바 이에서 낭비된 재료와 로력이면 수십 세대의 단층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오익근, 로동신문, 1957



"5명의 <<보살상>>들의 형상에는 <<부처>>가 아니라 육체가 조화롭게 발달되고 또 단정한 가운데서도 생활적 희열로 가득찬 당대의 신라 여성의 아름답고 소박한 모습을 진실하게 반영하려는 조각가들의 열렬한 지향이 잘 반영되어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시 신라 인민들은 이 조각상에서 <<부처>>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구체적인 생활을 보았던 것이다. ...

이렇듯 석굴암 조각의 높은 창작 성과는 당시 평범한 인민 출신의 신라 조각가들이 제재의 종교적 제약성을 극복하며 그들의 생활적 체험과 도덕-미학적 이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투쟁한 결과 쟁취한 귀중한 열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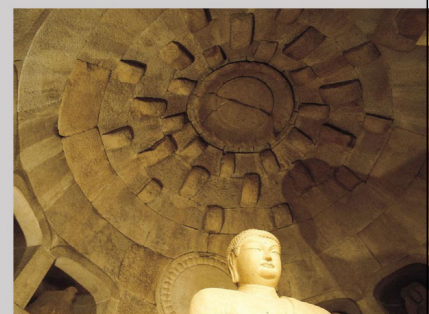
한상진, 노동신문, 1962



"궁륭 천정 건축에서는 현대 조립식 건설에서 원칙적 의의를 가지는 여러 가지 방법적 문제들도 시사되어 있다. ... 이 궁륭 천정을 이룬 매개 단은 각각 정확한 작도에 의하여 2중 곡면을 가진 10개의 석재로 되어 있다. 이것은 부재를 일정하게 규격화하여 집을 짓는 현대식 조립 방법을 방불케 한다.

... 오늘날에도 건축 이론과 실천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아동 궁전의 박막식 지붕이나 직경 45미터에 높이 9미터의 웅대한 교예 극장의 원형 지붕들은 석굴암의 궁륭 천정의 구조 력학적으로 엄밀히 타산된 아름다운 곡선 형태를 섭취하여 그것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더욱 발전시킨 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장희웅, 노동신문, 1963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회주의문화는  
선행시기에 인류가 창조한 모든 진보적인 문화의 계승과 개작에 의해서만,  
문화유산 가운데서 부정적인것을 제거하고 긍정적인것을 계승하여 새사회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 토대우에서만 건설할수 있다.”

김하명, 로동신문, 1967년

“한편에는 착취적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반동적인 문화가 있으며, 다른  
한편에는 착취받는 인민대중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민주주의적이며  
사회주의적인 문화가 있다. ...

현대성원칙은 우선 민족문화유산계승에 있어서 오늘 우리 인민의 공산주의 교양에  
알맞는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 오늘 우리 작가, 예술가들이 창작에서  
해결하고있는 사상적 및 미학적 문제들의 해명에 일정하게 도움을 주는 작품들을  
널리 발굴정리할것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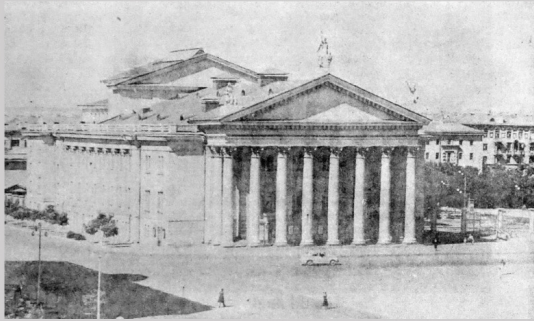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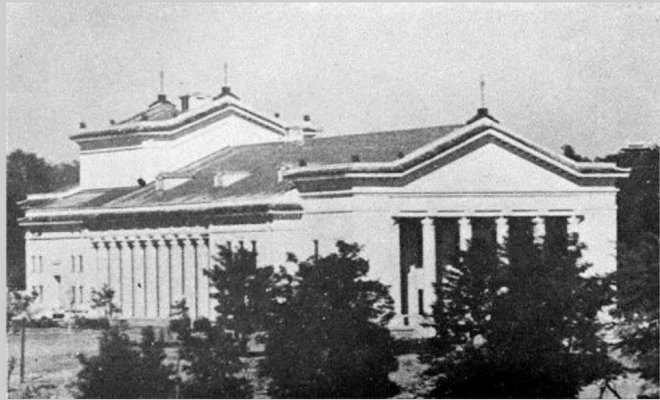
김하명, 로동신문, 196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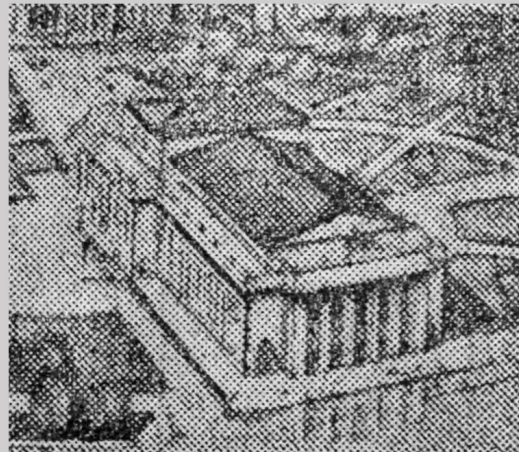




모란봉 극장 (1954년 완공)



Drama Theater, 스탈린그라드  
(2차세계대전 후 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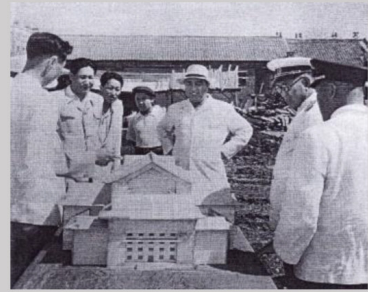


평양 시립 대극장 (c. 1952~53설계)



평양 대극장

마감 단계의  
평양 대극장  
1960년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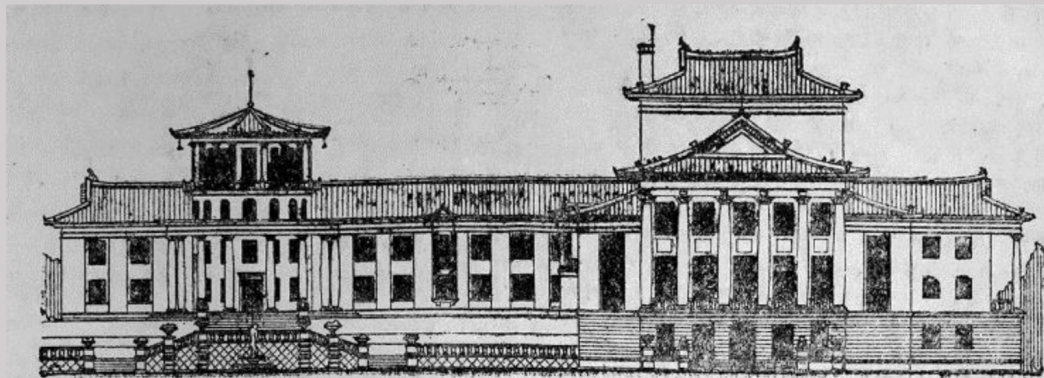
개관 당시의  
평양 대극장  
1960년 8월



지붕 변경 후의  
평양 대극장  
1962



설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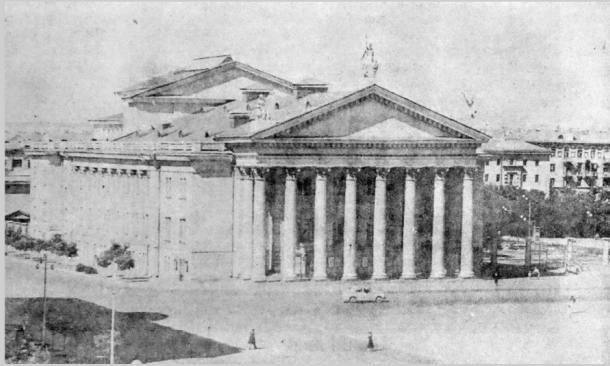


완공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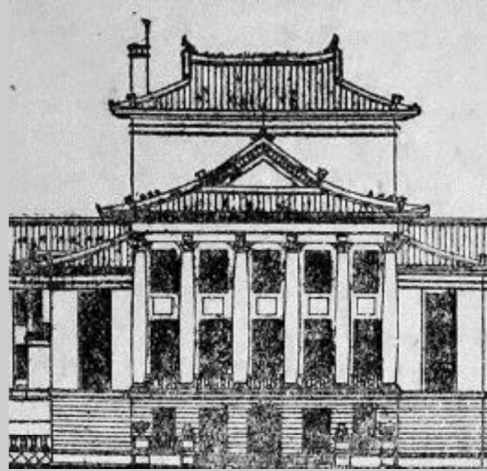


개성시 아동 회관 (현 개성 학생 소년궁전), 1957-1961





Drama Theater, 스탈린그라드  
(2차세계대전 후 재건)



개성시 아동 회관 설계안, 1957-1961

“우리 나라 과거 건축 지붕의 특성은 건물 중면 위에서 박공을 절대로 내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라파 건축에서나 일본 건축에서는 건물 정면을 형성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으로 지붕 박공을 내고 이를 미화한다. 해방후 우리 건축들은 어떤 리유에서인지 대단히 부자연하며 어색하기 짝이 없는 박공형 지붕 장식들이 건물 정면에 서슴치 않고 나불기 시작 하였다. 이러한 형식은 시급히 중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박항식, 문화유산, 1957





전면, 평양 대극장



측면, 평양 대극장



“기와는 조선 기와의 일반적 형태인 재빛색 도기 기와를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보다 아름답게 건축적 효과를 살리기 위하여 붉은색 도기 기와를 구어 그 우에 적갈색 유약을 입히었다.”

평양 대극장, 1960

### 3. 70년대 이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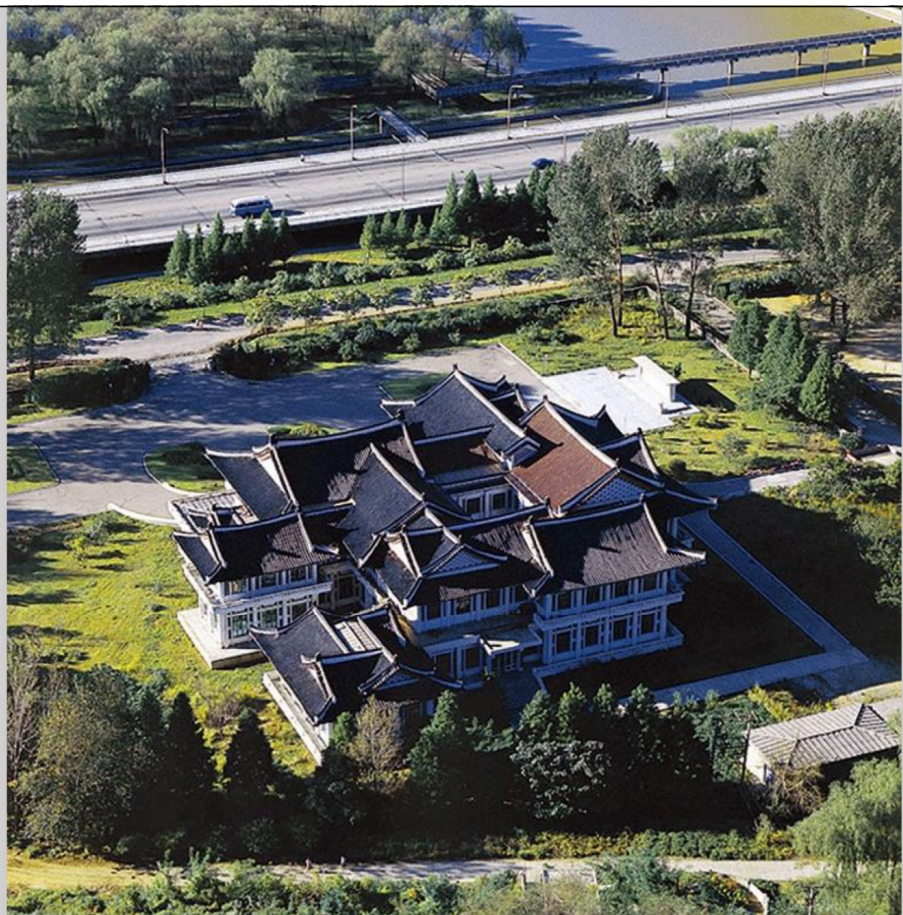


인민대학습당, 1979-82





인민문화궁전, 1974년 개관



평양수예연구소, 1978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 1978

“민족”에 관한 개념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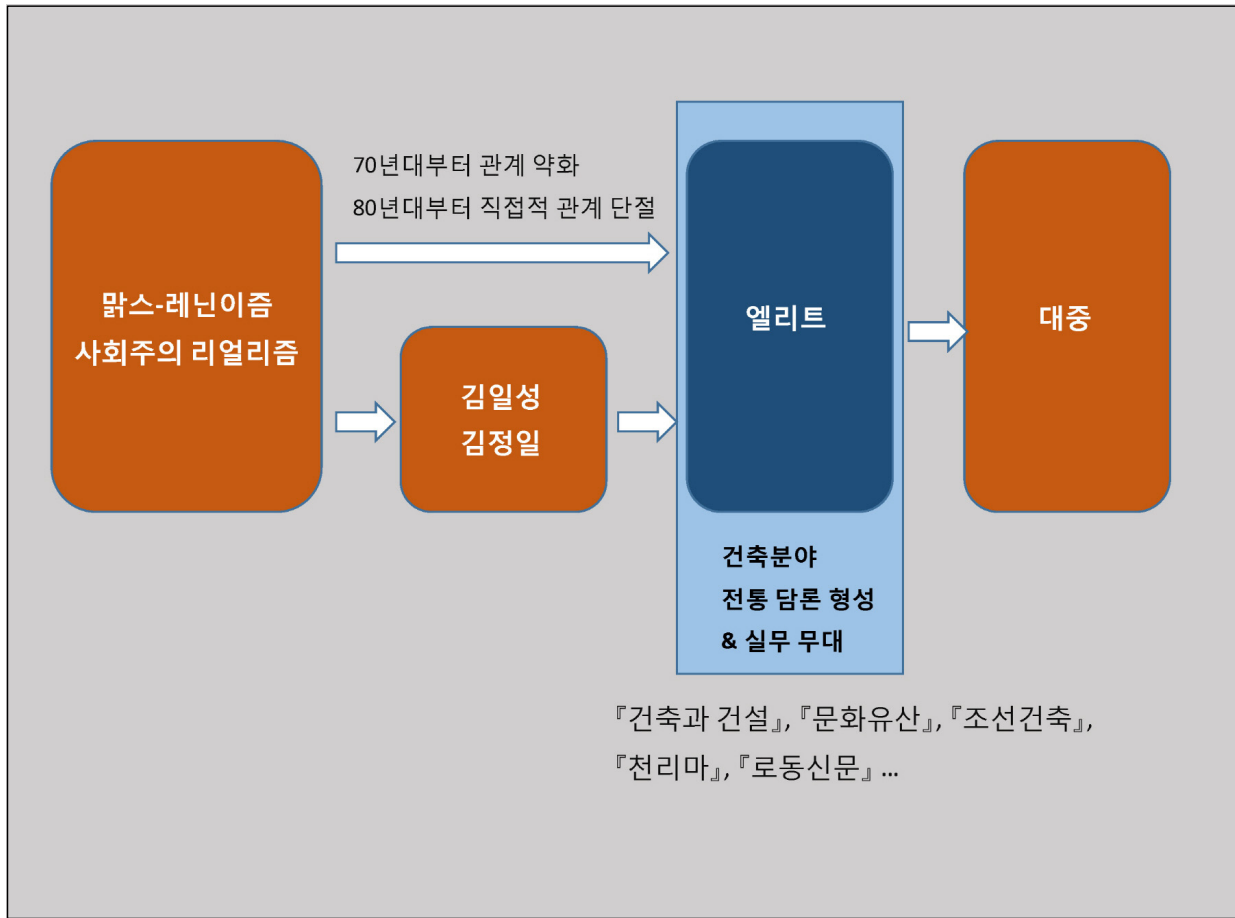
철학사전, 1970년판

“언어, 지역, 경제생활, 문화와 심리 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

철학사전, 1985년판

“핏줄과 언어, 영토와 문화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생활단위이며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

전미영 (2006), 북한사람들의 전통문화 인식, 한국민족문화, 27, p. 385에서 인용



『건축과 건설』, 『문화유산』, 『조선건축』,  
『천리마』, 『로동신문』 ...

**민족건축사상 발원배경**

**고구려건축의 민족적 교향**

우리 나라 후백제문화의 뿌리  
고구려 건축의 원형

조선건축, 1989.1

조선건축, 1990.3

**민족건축사상 발원배경**

**우리 나라 후백제문화의 뿌리**  
고구려 건축의 원형

조선건축, 1989.2

조선건축, 1989.4

조선건축, 1989.3



### 조선식이 제일 좋다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탁월하고 세련된 힘으로 우리 나라 건축상조사업을 현명하게 인도하시어 인공건축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끌어오신 주체건축상조사업은 세기적인 기적과 이룩으로 수놓아진 영광스러운 역사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께서는 언제나 주체적원리에 확고히 서서 모든 건축물들을 우리 식, 조선식으로 짓도록 일꾼들과 건축가들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주체51(1962)년 7월호 이노날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께서는 어느 한 일군에게 남원군, 시종군, 덕원군, 상동군 등 경지 아름답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들에 휴양주택을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맡겨주시었다.

그 일군은 곧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동원할데 있는 전국건설혁신전람회당에 도시형휴양소전문가 농촌형휴양소전문가 분과를 조직 지어놓았다.

휴양소분과기전들을 지어놓았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께서는 이제 당원에게 전히 전국건설혁신전람회를 찾으시었다.

일꾼은 먼저 농촌형휴양소전문가 있는 곳으로 어버이수령님을 안내드리었다.

이 건물은 부엌과 이레방, 화장으로 구성되어있었는데 아래방은 온돌방이고 온돌은 나무방이었다.

아래방에는 온돌과 책상, 두리반이, 온돌에는 침대, 상등대, 화장이 놓여있었다.

위마루에 오르시어 아래온돌을 한참동안 들여다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일군에게 원가가 얼마나 들었는가고 물으시었다.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동원한 일꾼들에게 휴양소는 간단히 짓는것이 좋다고 하시며 말하시었다.

《완안은 도배를 하는것이 좋으며 방바닥에는 장판을 하고 조선식두리반을 들여놓는것이 좋습니다. 그밖의 다른 가구는 방안에 놓을 필요가 없으므로 온돌을 들여내고 아래방에 자그마한 책상을 하나 만들어주어 거기에 트렁크나 넣어두고 옷걸이 하나 걸어놓게 하면 됩니다.》

그러시고는 손으로 허문에 벽장과 온돌계의 형태까지 그리시면서 이렇게 해주면 가족들이 와서 휴식할수 있다고 일깨워주시는것이였다.

예로부터 우리 농민들은 온돌방에 앉아 이야기를 할책 일어놓고 풍요한 농작을 바라보며 즐기는데 큰 낙으로, 기쁨으로 여겨왔다.

농민들의 이와 같은 생활방식에 따라 높은 요망과 낮은 위치가 생겨났고 이것은 농촌형휴양소의 당초화된 하나의 민족건축양식으로 되었다.

그런데 건축가들은 농민들에게 열렸는 현대적휴양소를 지어주어야한다는 생각을 갖지우던 나머지 농민들의 생활상조구와 농촌생활의 특성을 거의나 고려하지 못했었다.

그러다나서 전향파당이당에 분과로 꾸려놓은 농촌형휴양소전문가 휴양소도 아니고 살림집도 아닌 별립집이 되고있었던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촌형휴양소를 만들어놓고 볼바를 둘러싸는 일군에게 이런 건물은 원가를 지금보다 훨씬경로로 하는것이 좋다고, 휴양소는 앉누게 지어야 한다고 계속지우시고나서 말씀을 이으시었다.

《아래 건물은 지을때는 한 휴양소로 20~30세대씩 짓고 그다음에는 40~50세대씩 짓고 문화회관과 식당도 동시에 짓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서 다음에는 대청방에도 건설하고 시로에서 약원으로 가는 바다가와 연못, 대동강상류와 만경대루근, 백련다리 건너 산아루에도 지으라고 그 위치까지 하나하나 잡아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께서는 다시 집안함을 알려지면서 농촌형휴양소전문가 어떻게 짓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께서는 많은 온돌로 하는것이 좋다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온돌을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조선식휴양소에는 온돌방이 제일 좋다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께서는 또한 출입문과 창문은 모두 유리를 넣는것은 서양식이라고 하시면서 농촌형휴양소의 전통적인 휴양식을 살려 출입문과 창문의 1/2는 널문이나 창문을 붙이고 우세한 유리를 넣어야 한다고, 창문 아래부분에는 창살을 대고 출입문을 넣으라고 일깨워주시었다.

그리고 많은 주의를 보시고는 이마루에 쓴 우리 나라의 자연경관적특성에 맞게 그것을 길게 놓아주어 모양도 높여주라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계속지우시면서 조선식이 제일 좋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참으로 이날에 위대한 수령님의 방황은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요구하는데서 우리 일꾼들과 건축가들이 알아듣고나아가 할 귀중한 계령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이렇듯 두원한 주체적원리와 현명한 일로에 의하여 우리 나라 곳곳에 도시주민들과 농민들의 생활상조에 맞는 휴양각들이 꾸려지게 되었으며 우리 건축은 자기 민족, 자기 민족, 자기 나라 혁명에 이바지하는 가장 현명한이며 혁명적인 건축으로 끊임없이 발전할수 있었다.

본사기자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언제나 주체적원리에 확고히 서시어 모든 건축물들을 우리 식, 조선식으로 짓도록 일꾼들과 건축가들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조선건축, 2006.3



“우선 조선식합각지붕의 조형적형태를 그대로 살리면서 붉은 기와를 청기와로 전부 교체하였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왕궁건물에만 청기와를 쓰던 전통적인 방법에 맞는것으로서 평양대극장의 오랜 역사를 보다 깊이있게 펼쳐보일수 있게 한다.”

최웅술, 조선건축, 2009.



“우리 선조들은 건축물들을 건설하는데서 황금비(1:1.618)와 금강비(1:√2), 정수비들을 많이 적용하여왔다. ...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부드럽고 은근하며 밝고 선명한 색을 좋아하였으며 원색이 아니라 중간색계열로 건물을 장식하고 마감하여왔다. ...  
어두컴컴한 색, 빨강고 노랑고 파란 원색이나 그것에 가까운 진한 색들로 건물들을 막마하는것은 우리 식이 아니며 우리 인민의 감정과 구미에 맞지 않는 해결이다.”

리경심, 조선건축, 2007.2

“평면계획에서도 우리 민족은 1:1.618비로 많이 적용하였는데 이 비는 오늘날 건축에서 황금비로 불리워지고있다.

...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에서 민족적특성을 잘 살리고 빛내여나가야 건축예술을 통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심어줄수 있다.

...

주체건축의 순결성을 고수하는데서 우리가 경계하여야 할 문제는 민족성을 살린다고 하면서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고 덮어놓고 지난날의것을 고집하거나 현대성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민족건축형식을 부정하는것이다.”

최웅술, 조선건축, 2007.3

“우리 선조들은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황금비(1:1.618)와 금강비(1:√2) 정수비들을 많이 써왔다.

개선문은 정면높이와 너비의 비가 1:1.2로서 √2 즉 금강비에 가까운 비례로 구성되었다.”

김명호, 조선건축, 2008.2

“우리 나라 옛 건축에서 기둥과 두공은 가장 중요한 구조요소이다. 그러므로 건물실내에서 기둥들을 옛 건축물의 기둥형식인 배부른 기둥이나 흘림식기둥모양으로 처리해주고 간략화된 두공모양의 장식을 해주면 민족적특성을 잘 살려줄수 있다.

...

건물실내에서 미닫이식간벽들을 설치하고 유리로 된 미닫이문에 빗살무늬와 꽃무늬 같은 장식무늬를 형상한 문살들을 대주면 민족적특성이 더 잘 살아나게 할수있다. 그리고 창과 천정조명과 같은데도 살장식을 해주면 좋은 효과를 얻을수 있다.

...

우리 나라 민족건축은 기본적으로 기둥보식목조구성체계로 되어있었다. 그러므로 실내공간의 마감을 나무나 돌재료를 표현하여 해결하는것이 좋다.”

장철준, 림건영, 건축실내공간에서 민족적특성을 잘 살리기 위한 방법, 조선건축, 2017.2

## 결 론

1. 북한의 전통에 관한 이해의 틀은 맑스-레닌이즘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기인한다.
2. 북한 전통 담론의 특징으로 현대성, 선별성, 전형성을 꼽을 수 있다.
3. 전통에 관한 이해의 틀은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반의 담론에 의해 형성되었다.
4. 1960년을 즈음해서 건설된 평양 대극장은 이 후 현대 조선식 건물에 형태적 원형을 제공했다.
5. 80년대 후반부터 북한에서 전통에 관한 관심이 다시 커졌고, 점차 전통에 관한 좀 더 적극적 이용 경향이 두드러진다.



MEMO	
------	--

MEMO	
------	--

MEMO	
------	--



MEMO	
------	--

<b>MEMO</b>	
-------------	--

<b>MEMO</b>	
-------------	--



MEMO	
------	--

MEMO	
------	--

MEMO	
------	--



MEMO	
------	--